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27일)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맘껏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시작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껏 부처님오신날을 즐기지 못했던 불자들과 일반 대중은 다시 열리는 연등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가득하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연등을 도량에 장엄하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흥천사 동종’ 고난 유랑사, 끝 안보인다

문화재위 궁능분과 회의서 건립될 보호각 위치 변경 보고

덕수궁→고궁박물관 입구 변경
“불교계, 흥천사와 협의 했었나”
불교계 위원, 일제히 문제 제기

학계 · 시민단체 ‘환지본처’ 주장
전문가들 “흥천사로 환수 타당”
야외 보존 · 전시 적철치 않아”
“동종이 왕실유물인가” 지적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운의 성보 ‘흥천사명 동종’(보물)이 다시 보호각 아래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4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흥천사명 동종 보호각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완료 예정인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을 덕수궁 즉조당 북측에 건립하려 했으나 부지 내 자재 반입과 동종 운반의 어려움이 있다”며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을 국립고궁박물관 입구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보호각의 모양은 8각 형태이며, 지상 1층 · 높이 4.8m 규모다.

이에 불교계 측 궁능문화재분과위원들은 불교계와의 협의가 없었고, ‘흥천사’ 사찰명이 명확한 성보문화재를 박물관 야외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궁능문화재분과위원들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조가 발원해 조성된 흥천사명 동종은 1504년(연산군 10년) 12월 화재로 흥천사가 불타고, 1510(중종 5년) 사리각까지 전소되며 갈 곳을 잃고 유랑해왔다.

512년 동안 사찰을 떠나 이곳저곳을 유랑했던 흥천사명 동종은 그만큼 아픔도 적지 않다. 조선 전기 대표 범종임을 인정받아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때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흥천사명 동종은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정액 등으로 종 내부에 낙서까지 해놓을 정도로 방치됐었다.

불교계와 학계는 “흥천사명 동종이 유랑을 끝내고, 흥천사로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에서도 흥천사명 동종의 원만한 보존을 위해 본래 자리인 흥천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흥천사명 동종의 환지본처를 주장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연산군 당시 유생들이 불을 질러 흥천사가 전소됐지만, 연산군은 이를 불문에 부쳤다. 사실상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사찰이 사라진 것이고, 이로 인해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이 시작됐다”면서 “사찰의 성보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현재 새롭게 일신한 흥천사라면 동종의 보존관리 역량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 유랑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도 “야외에 보호각을 세워 보존하는 것은 범종 보존에 좋은 방안이 아니다. 그냥 전시품 정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종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본래 사찰인 흥천사로 이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흥천사명 동종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살펴야 한다. 문화재청이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성보문화재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보존 · 전시하는 곳”이라며 “흥천사명 동종이 조선 왕실에서 발원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찰 성보로서 조성됐다. 이를 왕실 유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흥천사 역시 동종의 환지본처를 바라고 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덕수궁에서 경복궁 고궁박물관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정릉 능침사인 흥천사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청은 우선적으로 조계종을 찾아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조선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문화재인 흥천사명 동종에 대한 최적의 보존 · 전시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보호각 건립 취지와 활용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로의 환수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궁능유적본부 다른 관계자는 “흥천사명 동종은 사찰명이 확인되지만, 현재 소유는 국가 소유로 돼 있다. 이를 사찰로 돌려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와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 선출

19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심임의장에 前수석부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또 수석부의장에는 무봉 성우 대종사, 차석 부의장에는 두산 일면 대종사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19일 제68차 회의를 열고 4월 말 원로의원 임기만료를 앞둔 원로의장 세민 대종사의 후임으로 대원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원 대종사의 원로의장 임기는 前원로의장 세민 대종사의 임기만료일인 12월까지다.

이날 회의는 원로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원로회의는 회의에 앞서 임기만료를 앞둔 세민 대종사와 정련 대종사, 지성 대종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前원로의장 세민 대종사는 “원로의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기에 오늘 회의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원로 스님들의 덕화로 중책을 맡았고 무사히 소임을 다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늘 함께해주신 헌신과 노고에 종도들을 대표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원로 대종사님들의 경륜, 지혜로움은 언제나 소중하다.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순조롭지 못하지만 오늘 원로회의에서 선출되실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선출에 이어, 수석부의장에는 성우 대종사, 차석 부의장에는 일면 대종사가 만장일치 선출됐다. 또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와 전 포교원장 도영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에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 2566년 조계종 불자대상
최민정 · 함종한 · 구자욱 · 박대섭 · 피아비



최민정 함종한 구자욱 박대섭 피아비

5월8일 봉축법요식서 시상식

불기2566년도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민정 · 함종한 · 구자욱 · 박대섭 · 피아비 씨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4월 21일 회의를 열고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민정(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함종한(헌정정각동우회 회장), 구자욱(프로야구 선수), 박대섭(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 스롱 피아비(프로당구 선수)를 선정했다.

‘불자대상’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가 19번째다.

올해 불자대상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2022년 봉축 표어의 의미에 맞춰 선정되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8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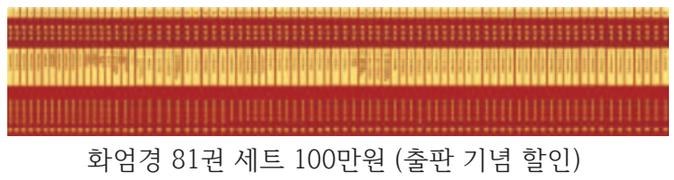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특집 B1~B8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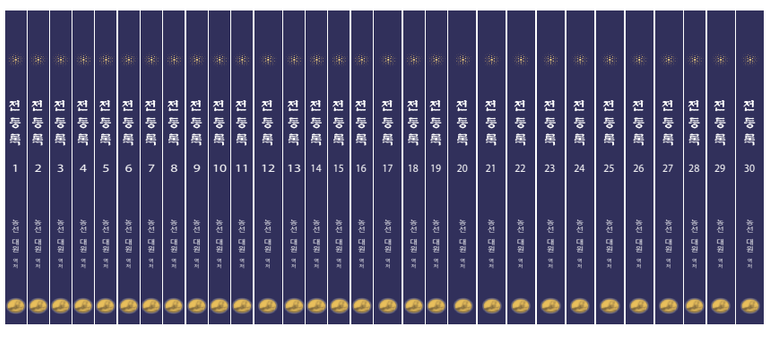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

비구니회관 20주년 법석, 10월 18일 봉행

4월 21일 원로회의서 사업 · 활동보고

노후시설 보수불사 막바지
자료 전시 · 공로패 수여 등
사찰음식문화센터도 개원


전국비구니회는 4월 21일 제8차 원로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올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을 맞아 당시 원로 스님들의 노고와 원력에 감사를 전하는 기념법석이 10월 18일 마련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4월 21일 제8차 원로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활동 및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비구니회 활동보고에 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상덕)와 사회복지법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보고와 안건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올 10월 18일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보고하고 자료전시를 비롯해 공로 · 공헌감사패 전달 등 계획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현재 회관건립 당시부터 축적된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20년 전 건립불사 당시 어른 스님들의 원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기념법석에서는 당시 자료들을 정리해 전시함으로써 그 원력을 널리 알리고, 도제 스님들에게 재차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는 제1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노후화된 회관 보수불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관 내 전반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시민선방과 어린이법당, 불교대학 강의실 등을 확보했으며, 법룡선방을 비롯해 회관 지하 1층~지상 3층 바닥재 교체 및 벽면 도장공사 등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공양간 보수 및 각 공간의 시설물 보완,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조명을 비롯한 크고 작은 보수를 완비한 상태다.

원로회 의장 수현 스님은 "봄이 시작되고 정치도 새로 시작되는 시기"라며 "전국비구니회가 그동안 잘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더 잘하는 듯 하다. 앞으로도 백지 한 장 마주 드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젊은 시절 불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어른 스님들께서 지금도 비구니회를 돕기 위해 힘든 걸음 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법답게 잘 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모든 비구니회 운영하는 데 마지막 증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제12대 집행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소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때 어른 스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료와 후배 스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며 "올해 20년 된 건물을 보면서 어른 스님들의 원력과 노고를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사찰음식문화센터 개원식도 진행했다. 센터는 전국비구니회관 지상 1층에 위치했던 가사원이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사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간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향후 사찰음식 활성화를 위한 강의 및 교육연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승 확보, 여타 종단과 협력을"

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
군승확보 촉구 성명 발표

대한불교청년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군승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 등은 4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계종에 조속한 군승 확보와 군포교에 여타 종단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올해 군종특별교구가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군승 파송 인원 18명 가운데 40%에도 미치지도 못하는 7명만 선발했다는 소식이 전하고 있다"면서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38세 미만에 사미계를 수계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도 출가자 급감에 따라 군 포교 정예인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군승 수급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 법당 건립과 포교 지원에 나섰던 천태종의 군종 파송 요구, 진각종의 군승 문제 관련 성명 발표 등이 있었지만 "불교 군종을 관할하는 조계종이 독선을 부린 결과 이러한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군승 독신 예외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군승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작금의 군승 수급 문제는 불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며, 조계종이 완수하지 못하면 다른 종단이나 재가교역자라도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조계종이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부족한 군승 11명을 자체 파송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여타 종단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포교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군승은 불교학 전공자를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급과 자질문제를 해결하고, 해당학과가 설치된 금강대(천태종)와 위덕대(진각종)도 사관후보생 양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면서 "소득과 계급을 가진 직업군인인 군승장교는 비록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출가수행자의 계율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소임임으로, 금후 군승의 신분규정과 선발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신교의 '군선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이관해 범불교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취임일성 '혁신'

4월21일 제주 혜관정사서
사부대중 1000여명 참석



"법화종 제20대 총무원 집행부는 '참회'와 '승가정신 회복'을 통한 변혁과 혁신을 기조로 소통과 원융살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단변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취임 첫 일성으로 승가정신 회복을 통한 종단 혁신을 선언했다.

법화종은 4월 21일 제주 혜관정사에서 제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취임법회는 고불문을 시작으로 법화종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종정도선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과 불교계 각 종단 스님, 정관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종도들의 열망과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불조(佛祖)에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관효 스님은 이날 변혁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도제양성 △포교원 재가동을 위한 포교원장 선출 △대중공의를 토대로 한 종헌종법 전면 제 · 개정 △냉담종도 및 억울한 피해를 입은 종도 구제절차 추진 △교구 해산의 피해를 입은 지역교구 복원 △안정사의 종단 본산으로서 기능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폐세력을 향해 단호한 대처는 물론, 누구든지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악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보완에 나서는 한편, 각 교구를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해 종무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의원 일면 스님,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 등 각 종단 스님들도 축사를 통해 종단의 앞길에 격려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관효 스님을 중심으로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넘어 다시 한 번 종단 중흥의 기틀이 튼튼히 세워지길 기대한다"며 "종도대중이 일심으로 화합해 선대조사들이 이룩한 업적을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도제양성과 불법홍포는 물론, 대사회적 역할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4월 20일 정식개원

4월 26일까지 간화선대법회
평일 무료…누구나 참여가능



재가자들의 한국 선 대중화 총 본산인 경북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공식 개원했다.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의 고우 스님과 적명 스님 등 한국 대표 선승들이 함께 모여 발원한 후 7년 만에 이룬 쾌거다.

개원식 겸 제 4회 간화선대법회 개회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과 간화선대법회를 계기로 위기에 빠진 한국 간화선이 인류와 세계에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선원장 각산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명상마을 에서는 전세계 최고의 유명 선지식의 가르침과 한국 선지식들에게 인가받은 가르침을 모두 통습한 최고의 가르침을 전수할 것"이라고 힘찬 어조로 밝혔다.

문경=김주일 기자

다시 만난 연등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봉축위, 올 연등회 일정 확정
연등행렬 시민참여단도 운영

코로나19 이후 3년간 대폭 축소됐던 연등회가 올 부처님오신날 재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연등행렬도 올해는 참가단체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면축제의 장으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2일 올해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연등회 메인법석인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이어지며, 대면으로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법석이 될 전망이다.

올해 연등회는 전통등전시회와 연등법회, 연등행렬과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 연등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행렬은 4월 29일 진행되며 참가단체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선학원, 부지매각 해명 없이 분원 유치원도 요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 · 분원장 몰래 분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일체의 해명 없이 연속적인 감사로 해당분원을 압박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창건주 개인 지명으로 기증돼 9년간 운영해 온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원기증자의 반대로 재단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사고사찰 지정'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해 왔다는 주장이다.

本紙에 제보한 총림선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학원은 총림선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매각한 것과 관련해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이 해명을 요청하자, 되레 창건주가 2013년 기증받아 운영해 온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기증자가 "유치원 · 어린이집을 선학원에는 맡길 수 없다"며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회수해, 선학원이 분원의 포교활동까지 저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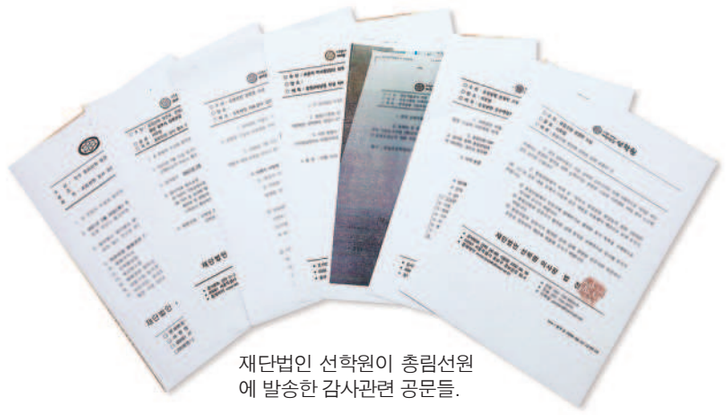
本紙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림선원 감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20년 7월 3일,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법진 스님에게 토지 일방매각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직후다. 선학원은 총림선원에 '종무행정 지도감사'를 예고하고 15건에 달하는 감사 준비서류를 요구했다. 상당부분이 그동안 재단 방침에 따라 이미 제출했던 자료였으며, 이 중에는 A스님이 운영해 온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8월 선학원은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권고하는 내용

총림선원 관계자들, 정황 제보
'사고사찰' 거론 감사 · 자료청구
"'유치원'을 빌미로 도넘은 감사"

이 포함된 감사결과 통보공문을 총림선원에 발송했다.

그러나 총림선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 어린이집은 한 재가불자가 '지역 어린이 포교'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창건주 A스님 개인을 지정해 기증한 것으로, 재산상 선학원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실제 유치원은 총림선원 재정과 별개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기증자와 그 가족이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해 왔던 것으로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에 발송한 감사관련 공문들.

확인됐다.

총림선원이 9월경 선학원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A스님은 법진 스님에게 "유치원 시설인 토지와 건물은 기증받은 것으로 총림선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기증자에게 물어볼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법진 스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학원은 원기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A스님이 선학원에 유치원 가등기를 약속했으니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첨부된 이행각서에는 기일이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됐지만, A스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행각서였고 구두로도 약속하거나 문서에 날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선학원의 내용증명을 받은 원기증자는 "총림선원 토지를 몰래 매각한 선학원에 유치원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앞서 매매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유치원을 회수했고, 선학원의 유치원 취득의사 여부에 따라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원기증자 B이사장은 "A스님의 원력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 어린이집인데, 성범죄자가 이사장이고 사찰 토지나 몰래 매각하는 재단에는 절대로 넘길 수 없었다"며 "이 재산이 형성되고 총림선원 스님의 원력으로 유치원이 지역 1위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선학원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심지어 재단법인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재산까지 이래라저래라 강요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림선원을 향한 감사 압박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선학원은 유치원 소유권 이전이 매매 형태인 것을 문제 삼았고, A스님은 확보 가능한 선에서 선학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재단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물론 해당 계약의 경위까지 소상하게 밝힌 것

"미제출시 사고사찰 지정"압박
유치원 재단 등록 지속요구에
원기증자 반발해 명의 회수도

으로 확인됐으며,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 이사회에 회신했다.

그럼에도 선학원 감사는 갈수록 강도를 더했다. 2021년 8월에는 "자료 미제출시 이사회에 상정해 사고사찰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분원장 · 창건주의 10년간 통장사본은 물론, 총림선원측이 소상히 알지 못하는 유치원 건립 불사내역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림선원 관계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왜 유치원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림선원 입장에서는 선학원 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망실했고, 잘 운영해 온 지역 최고명성의 유치원까지 잃는 등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학원이 총림선원에 대해 '사고사찰 지정' '법적절차' 등을 거론하며 압박감사에 나선 근거는 2019년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 전체에 대한 무상증여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빚었다. 재단법인의 권한 범주를 벗어나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까지 옭아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표나 안내 절차 없이, 사실상 분원 모르게 규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재산 뺏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도 거셌다.

한편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 이사회는 올 2월 총림선원이 감사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사찰 지정의 건을 논의했다. 本紙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총무이사 지광 스님 등에게 메일과 문자, SNS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생' 평화순례로 뭇생명 품어 안는다

상월결사, 4월 27일 월정사서

전세계 평화를 발원하며 교구본사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가 기존 평화순례에 '방생'의 의미를 더해 뭇생명을 품어 안는다. 자타불이(自他不二) 가르침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찾고 이를 통해 모든 생명붙이들을 위한 걸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4월 20일 간담회를 열고 "기존 상월결사 평화순례에 '방생' 의미를 더해 보다 확대된 의미의 '방생평화순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주 자승 스님이 제시한 '수행의 마음방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는 가르침이 담겼다.

첫 방생 평화순례는 4월 27일 오전 9시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취합 중인 참석인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전 9시 월정사 명상마을에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입재식을 열고 걷기 순례를 시작한다. 입재식에서는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신도와 불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에서 방생축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적광전 앞 특설무대서 한암대종사 탄신다례재가 봉행된다. 순례대중은 월정사 참배 후 다시 동피골 주차장까지 약 5.5km를 걸어 점심공양 후 다시 상원사까지 순례한다. 총 순례코스는 12km 가량이며, 우크라이나 희생자 추모를 위한 입정 시간과 상월결사를 통해 모연된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기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걷기 수행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를 통해 평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방생과 평화는 둘이 아니라고 본다"며 "코로나 방역이 일부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순례대중들과 함께 우리 시대 새로운 방생의 의미를 찾아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생평화순례' 취지를 밝히는 일화 · 호산 · 원명 스님.

지객 원명 스님은 "특히 기존 방생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방생문화를 현대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방생 평화순례는 월정사에 이어 5월 25일 백양사, 6월 법주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선학원, 분원 몰래 일방매각 묵과 안 돼"

선학원미래포럼, 4월 20일 기자회견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本紙가 보도한 '총림선원 부지 일방매각 사건'과 관련해, 선학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대표 자민)은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진과 이사회는 총림선원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스님들은 특히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은 재단에서 본래 소유하고 있던 사찰을 분원장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해당 사찰 창건주와 분원장이 신도들과 더불어 건립하여 재단에 등록한 것"임을 재차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의 최우선 결정권은 '해당 분원'에 있으며 결코 이사회가 분원 몰래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포럼은 "사실이 아니라는 선학원의 반론을 기대했지만 일말의 기대도 무산됐다"며 "이 상황은 한 개별 분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선학원미래포럼을 비롯한 전 분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우선 선학원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사회에 예속되지 않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물로 구성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스님들은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선학원에 등록한 것은 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분원의 재산운영은 우선적으로 당해 분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님들은 "불자들로부터 존경받던 큰 스님들께서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그렇게 해왔고, 실례로 분원에



선학원 미래포럼 기자회견 모습.

서 불사를 할 때는 위임장을 내려보내는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분원을 배려했다"며 "분원들이 선학원의 창립취지와 정신에 공감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기에, 역대 이사장스님들도 분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포럼 산하에 법률자문단을 운영, "이사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분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2022년도 상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에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7월)
   → 지원금 입금(7월 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

통도사 대웅전 불단, '금강계단 예배용' 확인

전국 사찰 불단 · 진영 일제 조사 보고서 발간

불교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결과로
통도사 불단서 첫 기록 발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양산 통도사 대웅전 불단은 금강계단 예배 용도로 조성됐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불단을 통해 사찰의 면모들이 확인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은 '2021년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와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2021년 전국 사찰 불단 일제조사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중 지난해 조사한 △순천 정혜사 대웅전(보물) △양산 통도사 대웅전(국보)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창녕 관룡사 대웅전(보물) △기장 장안사 대웅전(보물) 등의 불단을 포함한 전국 11개 사찰의 불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불단(佛壇)은 부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단(壇)으로 그동안 건축물의 일부로 인식되거나 예불의식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불상, 불화 등 다른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불교 목공예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지만 목재로 만들어져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 취약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인문학적 조사, 원형 디지털 기록화 등을 진행했고, 다양한 기록문서를 찾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양산 통도사 대웅전 불단 내부에서 조성 관련 기록 자료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를 통해 통도사 대웅전 불단이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며, 그 특성상 천판(天板) 상부에 불상을 봉안하지 않은 독특한 구조와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정밀조사를 통해 불단 중대 청판(廳板) 뒷면에서 묵서 기록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다. 기록을 통해 우운 진희(友雲 眞熙, ?~1694) 스님 주도로 1644년 대웅전을 중건하고 1645년 불단을 제작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불단을 제작한 대목수 상징(尙澄), 부목수 광현(廣玄) 등의 장인 외에도 제작에 참여한 인명 기록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묵서 내용은 그동안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통도사 대웅전의 중건 관련 사실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 운흥사 대웅전 불단의 하대목에서 묵서 기록을 발견해 1683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1731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운흥사 대웅전의 중건시기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록 자료다.

불패, 명경, 소통 등 불단 장엄구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 석남사에는 소통, 명경, 불패가 모두 전해지고 있었으며, 조선총독부 문서, 유리건판 등 과거 기록자료 등을 통해 창녕 관룡사 대웅전 불패는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는 것이 확인돼, 이전 불단 모습과 본래 장엄구의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조사에서 지난해 조사한 광주 · 전남 · 경남 지역의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밀양 표충사 등 28개 사찰에 소장된 347점의 진영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번 조사로 제작연대, 도상의 특수성, 희소성 등을 고려해 4점의 고승 진영이 그 중요성이 인정됐다.

합천 해인사 '부휴당선수 진영' 은 18세기 후반의 작품이지만 부휴선수(1543~1615)의 유일한 진영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크며, 해인사 국일암 '벽암당각성 진영' 은 1780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를 남기고 있어 다른 고승진영의 기준이 된다.

해인사 백련암 '환적당의천 진영' 은 1750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현존하는 진영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이며, 해인사 홍제암 '송파당 각민 진영' 은 송파각민을 그린 진영 중 양식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발간한 2종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 창원 도심 속 걷기명상 거행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원장 범해)이 4월 16일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전법 ON!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걷기순례' 를 진행했다.

이번 걷기명상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주관했으며,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행사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사무국장 혜안 스님을 비롯해 김영석 포교사단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장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순례길은 용지문화공원에서 성산아트홀, 창원광장, 창원 가로수길, 경남도민의 집, 용지호수공원을 돌아오는 구간으로 총 4.5km이며, 걷기 명상 외 참선으로 마음의 쉼을 얻도록 시민들을 안내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불교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순례일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듯 걸음마다 알아차림으로 수행하고 포교의 원력을 담는다면 전법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은 "오늘 순례를 시작으로 용지호수공원 일원이 정진과 지혜의 숲길로 가꾸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흥천사, 삼신괘불도 보물지정 기념 괘불재 봉행

4월 21일 회주 금곡 스님 등 사부대중 1천명 동참
금곡 스님 "미륵 부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셔"
미륵부처님 조성 봉안도…높이 2.5m에 5톤 무게

괘불도란 야외에서 법회나 의식 등 야단법석을 열 때 법당 밖에 걸어놓은 대형 불화를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조선초부터 괘불도를 걸어 크게 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를 정릉에 모시고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된 왕실 사찰 흥천사에도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가 전해진다. 이 성보는 지난해 12월 국가보물로 지정됐다. 특히 흥천사 괘불재는 조선 태조 때부터 흉년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야외 괘불법회를 통해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우란분재 수륙재 원각법석 화엄법석 기우재 등 국가주요 행사의 의식 등을 봉행했다고 실록에 전해진다.

괘불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간직한 서울 돈암동 흥천사(주지 각밀)는 4월 21일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보물 지정 기념 7일 기도 회향과 미륵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중앙승가대교수 금강 스님(제주 원명선원장), 낙산사 선원장 법인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흥천사 회주 금곡스님은 법문을 통해 "미륵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항상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때마다 간절히 찾고 명호를 부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살아가면서 미륵부처님을 마음과 가슴에 안고 또 여러분 스스로 미륵 부처님이 돼주시길 발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흥천사는 용화전 옆에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식도 봉행했다.



흥천사 괘불재에서 회주 금곡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흥천사 미륵부처님은 높이는 2.5m 크기의 5톤 무게로 국내 화강석을 사용해 1년간 조성했다. 국내 대표적인 조각가인 오채현 작가가 제작한 미륵불에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6바라밀을 상징하는 여섯 동자상이 4개면에 조각돼 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복지종사자에게도 템플 기회 제공한다

4월 20일 조계종복지재단 · 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4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종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에게 쉼과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서에 따라 △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종사자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혜택 제공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홍보 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

원경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인 스님은 "위드 코로나가 지속되며 과부하에 걸린 재단 산하 사회복지사 1만 5000여 명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면서 "협약의 계기로 불교문화사업단의 가치도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5월 말부터 전국 5개 사찰(가평 대원사, 수원 봉녕사, 속리산 법주사, 안동 봉정사, 지리산 화엄사(천은사) 등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월주 스님, 대사회 불교실천 구현"

동국대 불교연구원, 4월 22일
월주 스님 1주기 추모 학술대회



"월주 스님은 조계종이 선종의 돈오와 수행에 매몰돼 자비와 대사회적인 실천이 부족한 것을 '깨달음의 사회화' 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위대한 대승의 실천가였다. 월주 스님이야말로 진표 스님과 부절(符節)이 합하는 현대 금산사의 등불이자 진표 스님의 진정한 계승자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4월 2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 학술대회에서 "월주 스님이야말로 조선불교 이래 금산사를 대표하는 최고 성자"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월주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활동에 주목했다. 김자현 박사는 "스님의 솔선수범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을 준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키고 더욱 확장해가야 할 현대의 수행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박사는 올림픽이나 IMF 등 사회적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스님의 활동에 주목했다. 사회 · 경제적 문제가 표출됐을 때 약자 편에 서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고 그것이 바로 스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 보살행이라는 것. 김 박사는 "스님은 일생 동안 보현행원을 중시하면서 인류의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았고 그 방편으로 다방면에 걸친 사회활동을 펼쳤다"면서 "그 이면에는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성찰과 자연재해, 질병, 환경파괴,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숙고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조기룡 박사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대승불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당시 한국불교의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불교의 대사회적 공헌도를 높이는 운동이었다"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태동한지 십수 년이 흘렀다. 한국불교가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대승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때"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한마음선원, 우크라이나 구호나서

3월 24일 더프라미스에 3000만 원 전달…피난민 지원 예정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성금 3000만 원을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에 전달했다.

더프라미스는 3월 8일부터 독일 베를린 중앙역 내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으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현지 단체 아사달(ASADAL)과 우크라이나 동부 드네프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 식량 · 상비약 그리고 아동을 위한 놀이 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더프라미스 재난구호 이사 묘장 스님은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시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희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성금은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물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사)더프라미스는 △교육 △식수위생 △소득증대 △재난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협력단체다. 주요 재난 현장들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피란민 지원과 강원도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활동 및 쿠데타 피해 미얀마 주민을 위한 긴급식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차별금지법 촉구 릴레이 기도회 열린다

사노위, 4월 18일부터 국회앞
단식 종료까지 매일 11시부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활동가를 지지하는 기도에 들어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신 스님은 4월 18일 국회 앞 단식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봉행했다. 단식장에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4월 11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사노위는 스님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봉행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이종걸, 미류 활동가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매일 1시간씩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도 첫 주자로 나선 동신 스님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 축원문을 낭독하며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염원했다. 스님은 "삶이라는 어울림 속에서 누구나 보편적 인권과 평등이 실현되고 서로 존중돼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차별이 예방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성행 스님, 불교스카우트 연맹장 재추대

〈연맹10년사〉 발간, 조직 확장 등도 결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4월 16일 의왕 청계사 설법전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행 스님(중앙종회의원, 청계사 주지)을 연맹장으로 재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됐다. 불교스카우트는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대구 동화사와 말사 및 양산 통도사 · 부산 흥법사 그리고 호남권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조직 확장, 중앙승가대학교와 포교사 · 국제포교사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비한 회원국과의 교류와 결연, 동련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등 유관 단체와의 MOU를 통한 교류 협력 등을 결의했다.



또 그동안 불교스카우트 운동이 불교계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의 이정표로 삼기 위하여 '연맹 10년사' 를 발간하기로 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만큼 호남권 사찰 청소년들이 많은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1% 용기는 2만분의 1 기적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③ 조혈모세포 기증 Q&A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04년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의 혈액샘플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형을 검사해 일치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나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사찰 및 대학, 군부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연초 목표였던 2150명을 훌쩍 넘어 2250명을 희망등록자로 모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 결과 2021년 한 해만 53명의 백혈병 환자가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등록자를 통해 새 생명을 선물 받았다. 일치율이 2만분의 1에 불과한 조혈모세포기증의 이식대기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희망등록이 필요한 이유다. 1%의 용기가 100%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조혈모세포와 기증의 의미, 절차, 현황 등을 Q&A로 살펴본다.



Q 조혈모세포란 무엇인가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합니다. 정상인의 혈액에 약 1%정도 해당되는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골반뼈, 척추, 대퇴골, 흉골, 갈비뼈 등 뼈 내부에 존재하는 골수에서 대량생산되며 산모의 태반 및 탯줄의 혈액에도 조혈모세포가 존재합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특정한 대가 없이 질환치료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며,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백혈병이나 암 환자에게 이식을 하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백혈병, 혈액암 등의 환자는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해 건강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때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정상 기능을 수행하는 혈액세포가 만들어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Q 조혈모세포의 조직적합성 항원 일치 확률은 어떤가요?

조직적합성항원형(HLA) 일치 확률은 부모와 자식이 5%, 형제자매간은 25% 내외이며 타인 간은 수만 분의 1로 매우 낮아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조직이 일치한다고 해서 모두 기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기증할 수 있고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하기에 기증자의 신체 건강이 필수입니다.

Q 공여자로 선정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식 전 공여자가 이식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환자 이식일로부터 대략 4주 전에 시행합니다. 공여자는 검사 당일 금식상태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선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이 환자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식을 준비하는 동안 공여자는 균형 있게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며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불필요한 투약을 삼가합니다. 감염되거나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Q 공여자 입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혈모세포 공여자는 환자의 이식일 1일 전에 입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입원기간은 2박 3일입니다. 그러나 공여자의 상태에 따라 조혈모세포채취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세포 분리나 세포 확장을 추가할 경우 5일 이상의 입원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촉진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은 혈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4~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양팔 혈관에 바늘을 꽂아 한쪽 팔에는 혈액을 채취하고 기계에서 조혈모세포만 고른 후 다른 팔로 나머지 성분들을 돌려줍니다. 200~250cc 분량의 조혈모세포를 몸에서 채집합니다.

Q 조혈모세포이식은 수술실에서 실시하나요?

조혈모세포이식은 병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여자로부터 채취된 골수는 이식 후의 부작용과 이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혈모세포만을 분리한 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무균실로 직접 운반돼 중심정맥관을 통해 환자에게 주입됩니다. 자가이식의 경우 채취된 조혈모세포는 이식되는 날까지 냉동저장되다가 이식 일에 환자 옆에서 녹인 후 바로 주입됩니다.

Q 아프지 않을까요? 빈혈 같은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어머니 세포인 조혈모세포는 백혈구 · 적혈구 · 혈소판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로 우리 몸에서 가장 분열이 활발해 채취하더라도 2~3주 내 원상태로 회복됩니다. 기증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Q 기증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있을 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원활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에 근거해 공무원은 병가 처리하고 그 외 근로자는 유급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며 결국, 개인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Q 기증철회도 가능한가요?

기증 희망 등록을 했고 자신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기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두렵고 걱정돼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가족이 반대해서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락을 받고 초반에는 기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결국 '용기' 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면, 몇 번의 귀찮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해야 할 이유' 가 또 있을까요?

Q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과 희망등록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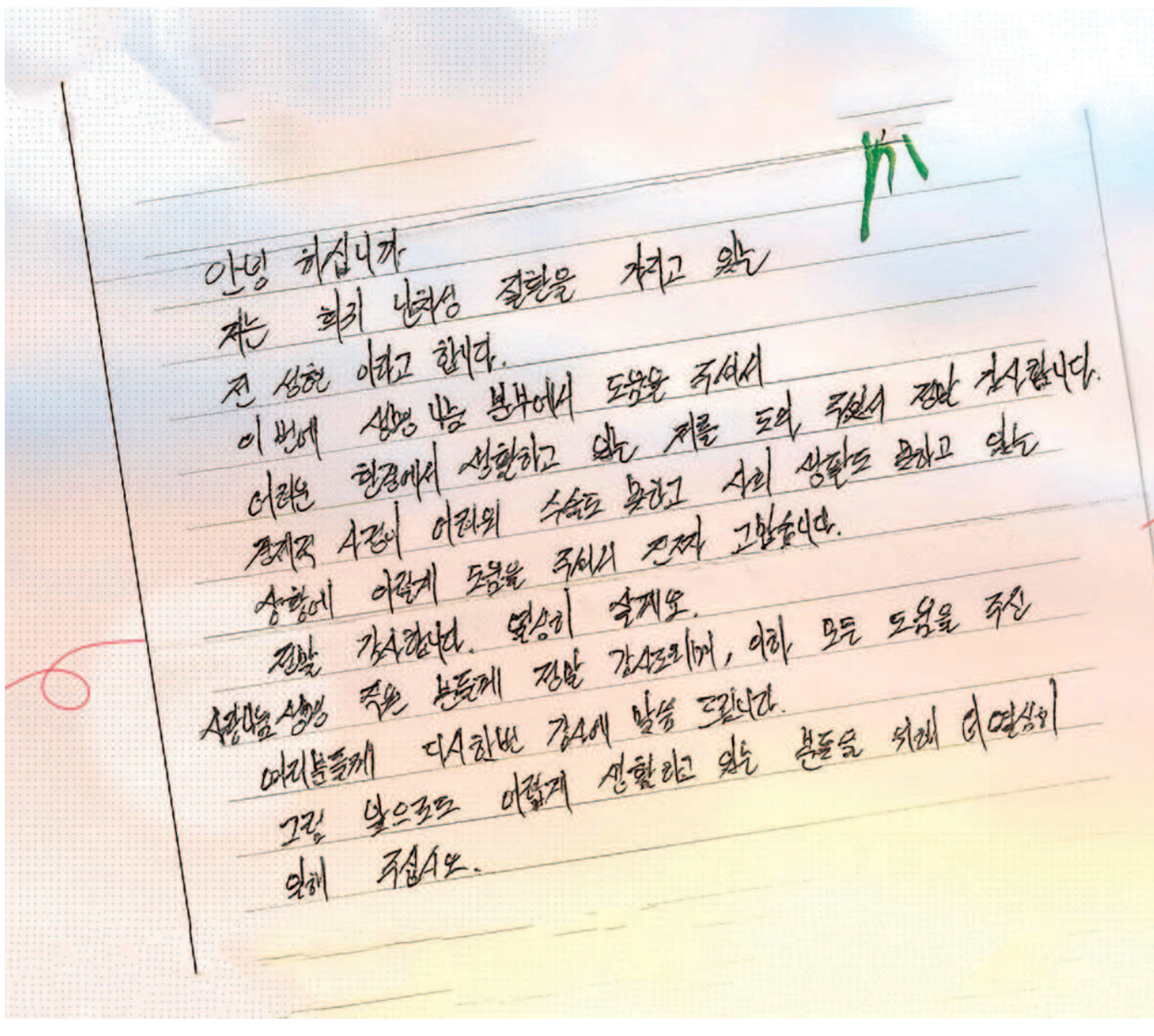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많지만 실제 이식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국내에서 연평균 461명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습니다. 하루에 1.3명꼴로 기증이 이뤄진 셈입니다. 반면 연도별 누적 이식대기자는 2020년 5000명을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Q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혈모세포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서울 종로구 삼봉로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를 직접 방문해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직적합성항원형 검사를 위해 3~5ml 정도의 혈약을 채취합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됩니다.

Q 기증 희망 등록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등록 후 연락두절, 가족 반대 또는 기증 거부로 인해 이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환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일치자 발생시 본인의 의사를 가족에게 알리고 기증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통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조직적합성원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희망이 됩니다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안구	뼈, 피부 및 근막, 연골, 인대, 심장판막, 혈관, 양막(태반 양쪽의 막) 등
기증시기	생존 혹은 뇌사 시 기증	사망 후 15시간 이내 기증
이식시기	즉각적으로 이식	가공, 보관 과정 거쳐 이식(최장 5년)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이 수혜

나의 기증 희망서약서 한 장이 환자들에게 환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증희망등록에 지금 바로 서명하세요.

장기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문의 02-734-8050**

온라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홈페이지 www.lisa.or.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등록
방문 생명나눔실천본부 방문 후 등록
우편 & 팩스 유선으로 요청한 양식을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등록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의씨앗

우리는 환경보살…'부산불교환경연대' 출범

4월 20일 범어사서 창립식 열려

선언문서 '청정불국토의 길' 천명
녹색사찰 만들기 · 환경법회 확산
'일회용 줄이기' 등 7대 사업채택
기후위기 · 생태위기 해법 모색도
광주전남 · 울산 이은 3번째 지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지역 환경보호운동을 이끌어갈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가 출범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4월 20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창립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창립식에서 앞으로 불교의 불살생 이념에 입각해 자연과 생명을 위한 환경보호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창립선언문을 통해 '청정불국토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창립식은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창립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 △등록증서 전달 △현판 증정 △취임사 △격려사 △치사 △축사 △임원 및 내빈 소개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고문 경선, 정각 스님, 불교환경연대 본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목종, 정관, 하림 스님, 상임위원 원타, 정산, 마나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해 지도위원 석산 스님,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박동범 법보신문 지사장, 손정현 BTN영남총국 본부장, 유지호 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 안하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불제자임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는 마땅히 환경보살이어야 한다. 환경보살이 아니면 삶터를 맑히지 못한다"며 "인간 중생이 제일인 줄 알고 뭇 생명을 업신여겼음을 참회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사찰경내 수행환경보전 자연보호 △지역사회 환경활동 연대 등을 이어간다.



불교환경연대 세 번째 지부인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출범했다. 사진은 4월 20일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식 모습.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만 스님은 안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환경보살로 앞장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 등록증서와 현판을 공동대표 목종 스님과 정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대원각사 주지이며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총재, (사)금강영관 대금강승문 이사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선학과 외래교수, 부산 동명대 외래교수, 경상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안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의 불살생 정신을 중심으로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되었다"며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부산을 재생하고자 한다. 부산시민들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푸른 부산, 맑고 아름다운 부산이 되도록 불교계 환경운동의 다양한 길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불교환경연대 본부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길 기대하고 부탁한다"며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의 불교환경연대가 함께할 것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온 생명의 벗이 되어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모든 일이 인과로 맺어져 있으며, 우리는 환경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인(因)을 저질렀고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과(果)로 돌아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환경을 대하는 불교의 입장만큼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은 없다. 부산불교환경연대의 창립이 부산시민 불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1년 10월 불교환경연대 활동의 필요성을 모의하며 모임을 시작해 2021년 11월 26일 발기인 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2년 1월에 창립준비 회의 후 2월에 불교환경연대 부산지부 창립 승인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후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고문 8명, 상임위원 15명,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14명, 감사 2명, 지도위원 22명, 운영위원 24명, 자문위원 22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108명의 임원 조직도를 구성해 출발을 알렸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광주전남 지부와 울산지부에 이어 세 번째로 창립한 지부이다.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창립23주년

4월21일, 진홍사서 기념법회 봉행
장학금 및 영양죽 1700만 원 전달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황기훈)가 4월 21일 부산 진홍사 대광명전에서 '창립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륜회는 매년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불사를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법륜회는 이번 법회에서 대학생 전법 포교 및 성장을 기원하며 부산대, 동아대, 동명대, 인제대, 대동간전, 해양대, 부경대 등 7개 대학에 각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에서 추천한 학생 4명에게 3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소화가 어렵거나 치아가 없어 영양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금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죽보드레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산개인택시 법륜회가 4월 21일 부산 진홍사에서 '창립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는 개회 및 회기 입장으로 시작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연혁 및 활동보고 △사랑의 영양죽 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회장 인사말 △격려사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법회에는 진홍사 주지 정법 스님, 황기훈 법륜회 회장, 정명희 부산북구청장,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김중권 부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법륜회 소속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황기훈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나아가 더 긴 세월을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고요하고 밝아지며 깊은 지혜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법륜회가 되자"며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정진 수행을 힘든 가운데서도 이어왔다.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정기 법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살행을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불교의 참된 원동력이다"며 "오늘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장학활동도 뜻깊게 생각된다. 올해부터는 법회뿐 아니라 불교대학, 수행프로그램 등으로 신심을 키우고 발전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999년 2월 11일 연산동 정수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나눔활동 및 자원봉사, 정기법회 등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매년 창립법회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아 소년소녀장학금 전달과 나들이 지원, 독거노인 연탄 후원, 쌀 나눔 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사찰 · 단체 봉축행사 봉행

삼광사 · 광명사 등서 행사 다채


삼광사 등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사찰과 단체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봉행했다. 사진은 삼광사 봉축 점등식 모습.

불도 부산의 구 · 군 연합회 및 사찰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점등식 및 기념행사들을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4월 15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하고 점등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증명 아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를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삼광사는 경내에 등을 밝히며 일상회복을 통한 국민행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허망한 꿈속의 욕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너와 내가 동체대비심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받기를 바란다"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영제)는 4월 19일 부산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부산진구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일대에 봉축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나투심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아울러 점등 이후 지역민의 행복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으로 의미를 더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은 이번 봉축점등 기간에 매일 오후 6시 30분 봉축탑 아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점등식에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문 혜총 스님, 회장 영제 스님, 가야사 주지 정현 스님, 총무 도원 스님, 정정심인당 원상정사 및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서은숙 진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 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14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구남로 일대에서 '불기 2566년 해운대구불교연합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번 봉축점등식은 해운대 바다 앞 관광 대표거리인 구남로에 처음으로 불을 밝혀 의미가 특별하며, 해운대 구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구남로에서 활동하는 상인에게 상생의 의미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 목종 스님과 수석부회장 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 前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 광진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해운정사 총무 신행 스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장영국 구남로 번영회장, 김화연 대륙광고 대표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15일 사상 이마트 광장 앞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을 봉행했다.

회장 성문 스님은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들 각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라며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가 됐을 때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사상이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4월14일 경내 지관전에서 전통등 · 지화 '지혜의 빛' 특별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목어, 별, 해, 십바라밀, 수박, 복주머니 등 다양한 모양의 전통등으로 복과 건강을 기원했으며, 특히 전쟁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토시등도 전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15일 경내 금강계단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4월 15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122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 노사나불정근, 수계식 및 계첩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3사 5증사에는 전계대화상 주지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 승가대학장 보문 정한 스님, 교수아사리 율학승가대학원장 삼현 원창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대오 스님, 원타 스님, 범일 스님, 범종 스님, 원여 스님이 맡았다.



전계대화상 경선 스님은 "참과 거짓을 떠난 마음자리에서 발보리심 내어 수행하는 불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계의 청정함으로 보살이 되고자 발심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모산 성주사, 삼보일배 수행정진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4월 17일 성주사 일대에서 삼보일배 정진 수행을 진행했다.

삼보일배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봉축 표어처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진행됐으며 성주사 일주문에서 출발해 성주사로 올라가는 산책로 '깨달음의 길'을 거쳐 지장전에서 마무리됐다.

삼보일배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불모학당 수강생을 비롯해 성주사 포교사회, 성주사 신도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삼보일배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말, 삼보일배 정진(석가모니불 정근), 발원문, 사홍서원, 공지사항,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진이다"며 "간절함이 공덕이 되고 정화의 마음, 초심이 되어 발보리심의 원력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련사, 산신각 낙성식 봉행

울산 백련사(주지 천도)가 4월 16일 경내 일대에서 산신각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백련사 회주 대해 스님, 주지 천도 스님, 석남사 주지 일영 스님을 비롯한 김민호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딜라잇 난타예술단의 도량 밟기, 난타공연이 이어졌으며 산신불공 및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헌공, 발원문, 축가, 베트남 원오도량 불자 천수경대비주합송, 인사말씀, 사홍서원 순으로 전개됐다.



주지 천도 스님은 "이 공덕이 모여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코로나 극복과 사회 안정, 나라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13기 입학

창원 진불선원(주지 무아)이 4월 1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선불교대학 제1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주지 무아 스님, 이철헌 동국대 교수, 주선임 신도회장 및 박종배 동문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선현 12기 선불교대학 회장, 김태형 입학생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무아 스님은 "사람 몸을 받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며 "입학생들은 불법과 인연을 맺은 지중한 사람들이다. 부처님의 제자로 발심해 오늘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봉불 점안

4월16일 정토마을 공경전서 개최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토사 관자재회는 4월 16일 울주 정토마을 간월사 공경전에서 적멸보궁 부처님 점안법회 및 진신사리 이운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로 단양 방곡사 묘허 스님이 나섰으며,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 북대암 회주 법춘 스님, 광성사 소남 스님, 통영 연화사 도법 스님, 해인사 무애 스님, 세심사 승인 스님, 오봉사 혜원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티베트 발덴 스님, 상뽀 스님 등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서범수 국회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장익 前 위덕대 총장, 서창원 불모, 김개천 건축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점안의식, 타종, 개회, 삼귀의, 내빈소개, 축사 2부 헌공의식, 육법공양, 청법가(세존사 대불합창단), 법문(묘허 스님), 피아노연주(오상문 피아니스트), 찬불가, 공지사항 3부 이운의식, 피아노연주, 육법공양, 헌공의식,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정토사 관자재회는 4월 16일 적멸보궁 봉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능행 스님은 "출가 후 의료와 교육 불사 활동 하다 오늘에야 처음으로 법당 불사를 하여 오늘 정토마을 간월사 공경전에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며 "법당을 구비하기 위해서 아미타불과 신중탱화를 점안하지만 차후 불사가 더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법하고 장엄하게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신심이 나고, 번뇌가 끊어지는 감로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다. 현대와 전통의 감각을 잘 맞춰 편안히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경전은 기도대법당으로 선망부모를 생각하며 지장보살을 조성하는 보은전, 적멸보궁, 삼천불 및 만년위패가 모셔지는 상락아정에 지장보살 대불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상층 적멸보궁에는 부처님의 전골 진신사리가 사리탑이 준비되는 대로 봉안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큰 뜻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한 능행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정토마을이 앞으로 계속될 불사를 부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원만성취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축사로 "3년 전 경사지인 이곳이 공경전으로 변화된 모습은 불자들의 정성이 있어 가능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철 스님 탄생지 겁외사에 통일비 건립

1989년 3월 내린 법어 '통일을 바라며' 새겨

"화합, 평화, 통일 기대돼" 겁외사 성역화사업 마무리

성철 스님 탄생성지 산청 겁외사에 모든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통일기원비가 건립됐다. 성철 스님 문도회와 겁외사(회주 원택)는 4월 21일 겁외사 앞 사면불을 모신 광장에 성철 스님의 '통일을 바라며'를 새긴 법어비를 세웠다. 비는 기단 포함 높이 3m, 넓이 2m 80cm의 크기로 이재근 산청군수가 보시한 것이다.

이번에 새겨진 '통일을 바라며'는 성철 스님이 1989년 3월 1일 종교인연합회에 내린 법어(法語)로 간절한 통일의 마음을 담았다. 성철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 정확한 한글 법어가 눈에 들어온다.

성철 스님은 '통일을 바라며'에서 "만방의 자랑이며 구주(九州)의 영광인 배달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이 천하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낙토(樂土)에서 대대로 융성하여 천만 년을 살아오며 한 핏줄의 따슨 정을 오손도손 나누었거늘, 오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섬을 조상들이 아실까봐 두렵고도 두렵구나"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스님은 또 "감로수로 빚은 술을 오색 잔에 가득 부어 서로서로 권할 적에 흥겨워 노래하며 저절로 춤을 추니 도원의 옛 동산도 무색하기 짝이 없네. 한라산에 솟은 달이 천지못에 비치우니 어허라! 좋을시고 삼천리 한땅이요 칠천만이 한형제이니 한려수도 돌아보고 만물상을 구경가세"라며 평화와 통일을 강조했다.


산청 겁외사에 세워진 통일기원비. 겁외사 성역화 불사 마지막 단계 사업이다.

겁외사 측은 이번 통일기원비 건립으로 겁외사 성역화 불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음을 전했다. 겁외사는 "2001년 겁외사 불사 회향, 2014년 성철스님기념관 조성, 2021년 사면불 낙성에 이어 이번 기원비 제막으로 겁외사는 명실상부한 성철 스님 탄생성지로서의 사격(寺格)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겁외사 성역화 불사에 진력해 온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신라의 삼국통일 기운을 염원하며 지난해 사면불을 조성했고 또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전쟁 없는 불국정토를 꿈꿨던 성철 큰스님의 원력을 이어 받아 불사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많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로 내년 성철 큰스님 열반 30주기 전에 불사를 마무리하게 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택 스님은 또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평화롭게 통일된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경남지역 봉축점등식 이어져

고성사암연합회 · 통영사암연합회 등 개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지역 곳곳에서 봉축점등식이 진행됐다. 고성사암연합회(회장 수운)는 4월 16일 고성군 송학동고분군에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이날 점등법회에는 고성사암연합회 회장 수운 스님(약수암), 관음사 동명스님, 적멸보궁 지성 스님, 문수암 법광스님, 옥천사 종성 스님, 통영사암연합회회장 종묵 스님, 도법 스님, 자용 스님, 운흥사 선현 스님, 장의사 현재 스님, 청수암 진각 스님, 무위사 명조 스님, 서방사 등정 스님 외 지역스님들과 백두현 고성군수, 박용삼 고성군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고성사암연합회장 수운 스님은 봉축사로 "부처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 무차별의 사랑을 대자대비심이라 표현했다.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영문도 모르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 대자대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운 스님은 이어 "부처님의 광명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빨리 오길 바란다. 오늘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해 만든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에 불을 밝힘으로써 희망의 등불이 되어 자비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도 4월 17일 항남동오거리 잔디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두타사 자용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용화사 팀플스테이 스님, 김갑조 통영신도단체연합회, 조용정 통영거사림회 회장, 유대암 보현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봉축사에서 "경전에 담마기금이란 말은 삶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아까워서 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지혜와 자비실천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욕망과 분노의 습관을 버리고 이웃과 모두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은 4월 21일 제3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주 화엄불교대학 제34기 입학식

신입생 31명 입학, 일원 스님 "불교공부가 행복"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운영하는 전주 대표 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이 4월 21일 입학식을 진행했다.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 제환 스님, 효진 스님, 우림 스님, 공해 스님, 여찬 스님,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신입생들이 참석했다.

일원 스님은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며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여러 신행활동을 통해서 졸업할 때쯤이면 정신적 완성도와 잠재적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선 17교구 신도회장은 하유호 108산사 순례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화엄불교대학은 지역의 전법과 포교, 교육을 도맡아온 근본도량"이라며 "화엄불교대학이 시대에 앞서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은 축사에서 "화엄불교대학서 열심히 정진해 부처님의 미소를 언제나 가슴에 담고 살자. 이웃과 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불자로서 화엄불교대학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불교대학은 1년 과정동안 학장 일원 스님, 전북불교회관 총무국장 우림 스님, 흥복사 주지 공해 스님, 특강 묘주 스님, 여찬 스님, 남궁선 박사, 김정희 원광대 교수, 조주현 교수, 소현숙 교수, 이미종 교수, 이영배 학생처장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관사 불교문화유산 연구 본격화

천관사 · 국립나주문화재硏 4월 19일 업무협약

신라시대 조성된 화엄종 고찰인 전남 장흥 천관사의 문화유산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다.

장흥 천관사(주지 지행)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 한성욱)은 4월 19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천관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천관사와 두 기관은 천관산 소재 문화유산 학술조사 · 연구를 비롯해 △국내 · 외 학술대회 개최 △국내 · 외 답사 주관 △온 · 오프라인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천관사와 이들 기관은 학술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고 천관사 가람 배치와 천관보살 신앙과의 관계도 규명해볼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문화재 대내 · 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과 민간과의 협력 사례"라며 "지역에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가치 발굴, 보존 ·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창녕 약수암, 낙성 점안법회 봉행

창녕 약수암(주지 왕산)은 4월 17일 대웅전에서 약수암 불사완공 낙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약수암 주지 왕산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자윤 스님(법성선원), 총무원장 청암 스님(요산정사), 종회의장 태일 스님, 호법원장 현응 스님(밀양 구룡암) 등 종단스님과 채경숙 신도회장 외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복장불사와 점안식 및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헌공, 인사말, 사홍서원, 회향식으로 진행됐다.

종정 자윤 스님은 "자비와 청빈한 삶을 수행실천 덕목으로 생활하자. 부처님 가르침이 사부대중의 마음에 스며들어, 맑고 밝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원 스님 · 경우 스님 전북도지사 표창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로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앞장선 공로로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일원 스님과 경우 스님은 4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 및 기관 시상식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금산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날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선운사는 교구 65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선운문화재 등 각종행사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극복 성금으로 2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상권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 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긴장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천 천룡정사 약사여래불 점안법회 개최

영천 천룡정사(주지 지덕)는 4월 17일 경내 대웅전에서 칠보삼존불 및 약사여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을 법주로 삼보실천승려회 대덕 스님과 무형문화재 단공 스님, 의식집 불사에 동참한 손혜정 등이 참석했다.

법주 혜각 스님은 "자신의 어리석음, 욕망을 영원한 복밭인 부처님 전에 모두 내려놓고 수행정진하자. 보리심을 내어 이웃과 사회, 국가에 큰일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4월 17일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그 다음날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이는 약사여래불의 가피"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연밭 풍경서 들려온 부처님 말씀

사진작가 이용하 개인전 '향결청정'
4월 29일~5월 16일 조계사 나무갤러리

양수리 연밭 촬영한 사진 20여 점 전시
〈숫타니파타〉 인연으로 연꽃 촬영 시작
사진에 〈금강경〉 등 사경작품 새겨넣어
"연밭 풍경에서 깨닫게 된 부처님말씀
더 많은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이용하 作, '극락정토' 250cm×112cm, 금강경-정재창 作

40여 년 동안 나무, 산, 새 등 자연을 소재로 사진을 찍어온 이용하(73) 사진작가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꽃(蓮)을 소재로 한 사진전 '향결청정(香潔淸淨)'을 연다.

이 작가는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여는 생애 첫 개인전에서 연밭의 4계를 담은 사진 30여 점을 선보인다. 연잎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연밭 사진 중에는 길이 2m가 넘는 대작들도 다수 있으며, 사진에 〈금강경〉, 〈반야심경〉 등 사경작품을 새겨 넣은 작품도 있어 불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강경〉을 새겨 넣은 작품은 한 장의 지면에 〈금강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작가는 연잎의 풍경을 찍으면서 처음부터 화면에 경전을 새겨 넣을 생각을 했다. 화면 속에 경전이 들어갈 공간을 미리 설정하고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에 경전을 새겨 넣은 것은 보기 드문 작업으로 거의 처음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가는 "연밭을 찍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떠올랐고, 사진 속에서 부처님의 법향을 느끼고 싶어서 경전을 사진에 새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 새긴 사경 작품은 서예가 정재창 등의 작품들이다.

전시장에서는 연꽃의 4계를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인 무상 · 고 · 무아의 삼법인과 인과의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향결청정'이란 '향기가 아름답고 고결하며 맑고 깨끗하다'는 연꽃의 네 가지 덕을 의미한다. 이 작가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이른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에 양수리를 찾았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대부분 양수리 주변에서 이른 아침에 촬영한 사진들이다. 원하는 색감과 분위기를 찍기 위해 한 장소에서 한 달 넘게 기다리기도 했으며, 화면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모두 파노라마 화면으로 촬영했다. 여명에 비친 산과 강, 물안개, 물결과 연꽃 등이 노랑, 빨강, 보라, 파랑 등의 빛깔들과 함께 드러낸 신이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가는 고요 속에서 풍경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시간과 시간을 촘촘하게 마주했다. 얼핏 보면 사진을 담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기다림을 스쳐지나간 시간들은 그 시시각각으로 모두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다린 시간들이 모여 사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으로 이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다. 이 작가는 자연을 주제로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순간 연꽃과 지중한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위 경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살아가라(처염상정 · 處染常淨)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적듯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연꽃의 삶을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며, 연꽃이야말로 아무런 대가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부처님꽃임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연꽃이 들려주는 가르침을 오탁악세에 살더라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꽃은 제게 봄기운 무르익을 때 기지개를 펴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꽃으로 피어나는, 그러다가 가을이면 시들다가, 겨울이면 늙어 스러지는 생로병사의 모습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여명을 머금은 양수리 연잎들이 빚어내는 신비한 광경들은 불가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 열반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끝 모를 환희심이 솟구쳤습니다."

이 작가는 새벽마다 연꽃을 지켜보면서 연꽃의 삶이 인생과 똑같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 이 작가는 연꽃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오묘한 세계를 포착하며 포착해낸 무상, 무아, 회귀, 윤회 그리고 환희로움을 더 많은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전시회를 열었다. 이 작가는 이른 새벽 강가에서 기다린 풍경과 마주하며 스쳐지나가는 풍경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학종 작가는 추천의 글에서 "이용하 작가는 연밭이 있고, 산과 강이 있고, 그리하여 몽환처럼 물안개가 피어나는 곳 양수리에서 지난 2년여 간 새벽마다 수행자처럼 카메라를 들고 빛과 물과 안개와 그늘이 연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묘한 앙상블을 담아냈다"며 "사진을 찍는 작가는 육안으로 부족하면 공간을 압축하고, 넘치면 시간을 쪼개는 내공으로 가물가물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의 궁극을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용하 작가는 2014년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예술의전당 한가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사진초대전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02)2011-1782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 특별기획


림 시옹 와이 감독(말레이시아)의 '마음의 호수(16분)' 스틸컷

4월 29일, 5월 1일 영화의 전당 중극장
구담스님의 '오월의 만다라' 등 6편 상영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불교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을 선보인다.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영화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48개국의 단편영화 154편을 선보인다. 단편영화의 허브로 불리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아시아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쇼츠 섹션에서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불교'를 주제로 한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이라는 프로그램을 특별 기획했다. 프로그램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다룬 6편의 작품을 4월 29일(오후 2시 30분)과 5월 1일(오후 12시) 부산 영화의 전당 중극장에서 연속 상영한다. 불교적 주제와 상징을 애니메이션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부터 수행자의 사회적 회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비구니가 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담아낸 자전적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각과 여러 장르의 불교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부처님 영화 보러 오신 날'에서 소개되는 작품은 구담 스님 감독(한국)의 '오월의 만다라(25분)'를 비롯해 루루 감독(중국)의 '그릇(19분)', 멀빈 찬 감독(싱가포르)의 '무디타: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9분)', 림 시옹 와이 감독(말레이시아)의 '마음의 호수(16분)', 주현준 감독(한국)의 '윤회(5분)', 빌헬름 필히너 감독(티베트)의 '티베트사원의 축제와 기도(9분)'이다.

5월 1일에는 구담 스님, 림 시옹 와이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그담 스님의 '오월의 만다라'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5.18의 이면을 담은 작품이다. 림 시옹 와이 감독의 '마음의 호수'는 나비에 마음이 팔려 기나긴 여정에 오르는 어린 승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bisf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3

▶ 64회 예고
아쇼까는 충성하지 신하들을 살해하려고 라다굽따 수상을 불러 상의한다. 라다굽따는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파견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쇼까는 따를 수 없는 명을 내리고서 신하들이 거부하자 왕명거역죄로 모두 살해해 버린다.



아쇼까왕, 칼라따까에 환송연 베풀다

궁중연회장 문들이 오랜만에 열렸다. 연회장 내부의 모습은 몰라볼 만큼 완전히 새로웠다. 창문의 모든 커튼들은 코끼리 상아 같은 흰색의 비단 천으로 바뀌어 펄럭거렸다. 궁중연회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쇼까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연회는 옛 까시국으로 떠나는 칼라따까를 위한 환송연이었다. 칼라따까는 아쇼까가 왕위를 잇는 데 누구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신이었다. 왕궁 접견실에서 라다굽따와 칼라따까가 연회를 기다리며 담소했다.

"대왕님께서 연회를 지시하셨다니 감개무량하오."

"떠나는 수상님을 어찌 잊겠소? 너무도 당연한 연회지요."

"꿈을 이루고 떠나니 여한이 없소만 그래도 큰 걱정이 하나 있소."

"대왕님께서 옛 까시국 부왕으로 임명한 것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러니 걱정은 내려놓고 앞으로는 인생을 즐기시구려."

"그런데 말이오..."

칼라따까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 안심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도리질을 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가 왕위에 올랐으니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칼라따까의 생각은 달랐다. 라다굽따가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수시마를 옹립했던 왕자들이 나를 비웃었다고 하오. 교활한 위인이 사라지게 됐으니 이제 자신들이 나설 때가 됐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소.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말먹이꾼이 전해주었소."

"왕자들이 아쇼까왕을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불복하겠다는 말이군요."

"불행한 일이오. 수시마 부왕을 앞장서서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 다섯 명을 제거했는데도 이러니 어찌 걱정하지 않겠소?"

라다굽따는 문득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수상의 지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부귀영화의 락슈미여신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구나 하고 행복했는데, 자신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파괴의 시바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쇼까왕이 접견실로 들어왔다. 아쇼까왕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연회장으로 가자고 말했다.

"지금 가시죠. 내가 조금 늦었소. 다르마 대비님이 갑자기 오셔서 늦었소."

"연회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수상을 잊지 않을 것이오."

라다굽따와 칼라따까가 아쇼까왕 좌우에 서서 안내했다. 연회장에는 1백여 명의 사람들이 미리 와서 착석하고 있었다. 왕실 귀족과 관리들이 연회복과 모자를 쓰고 아쇼까왕을 맞이했다. 아쇼까왕이 입장하자 박수가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궁중악대의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아쇼까왕이 착석하자 그제야 연주가 멈추었다. 아쇼까왕이 연회장을 흡족하게 둘러보면서 일어났다. 연회장 분위기가 자신이 취향대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빈두사라왕이 외국의 진귀한 수입품들을 좋아했던 반면에 아쇼까는 자국의 것들을 장려하고 애호했던 것이다. 아쇼까가 짧게 한 마디 했다.

"오늘은 칼라따까 원로대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 마음껏 만찬을 즐기기 바라오. 칼라따까 원로대신은 선왕에 이어 나까지 2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이오. 나는 마우리아왕국을 대표해서 칼라따까 원로대신에게 존경을 표하오. 감사를 표하오. 우리 모두 역시 칼라따까 원로대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쳐주는 게 어떻겠소?"

박수를 받은 칼라따까가 일어나 하객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런 뒤 건배를 제의했다.

"하늘의 신들이 찬탄하는 마우리아왕과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궁중무희들이 무대로 나와 궁중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쇼까가 칼라따까에게 양해를 구했다.

"수상, 나는 이쯤에서 일어나야겠소. 어머니께서 와 계시오."

"저에게 잠깐이라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소. 무대 뒤에 내 방이 있소."

무대 뒤쪽에는 왕을 위한 비밀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연회 때 왕이 옷을 갈아입거나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보고를 받는 공간이었다. 칼라따까는 비밀의 방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직접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쇼까왕이 의자에 앉자마자 바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오?"

"왕정을 펴시는 데 일단 우환을 제거했지만 아직 위험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왕자들이오?"

"예,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무시해 버리겠소."

"잔불이 무섭습니다. 왕궁에는 그분들을 추종하는 귀족이나 하인들이 많습니다. 잔불은 언제든 큰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소, 그대의 충정을 잊지 않겠소."

"그들은 제가 떠나는 것을 두고 교활한 위인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절대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오. 잔불이 큰불이 될 수 있다는 그대의 충언을 명심하겠소."

아쇼까왕은 어금니를 물었다가 놓았다. 다섯 명의 왕자들을 제거한 것으로 왕실의 질서가 잡히리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방 밖으로 나가려다가 물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왕권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역모 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라면 극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교활한 위인들이 있는 한 왕실은 늘 안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소. 편히 떠나시오. 나는 고름덩어리 같은 왕자들을 반드시 도려내고 말겠소."

아쇼까왕은 칼라따까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했다. 칼라따까가 위로했다.

"친위대장에게 오늘 연회에 참석한 왕자들부터 소리 소문 없이 납치해 제거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왕명이오. 그렇게 하시오."

아쇼까왕은 독이 올라 망설이지 않고 허락했다. 아쇼까왕이 비밀의 방을 나가자 칼라따까도 연회장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불렀다.

"대장, 잠시 내 옆에 앉으시오."

"예."

라다굽따 수상은 연회장을 돌면서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턱으로 왕자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연회장에 있는 왕자들이 몇 명이나 되오?"

"열한 명입니다."

"연회가 파하면 그들을 미행했다가 납치해 우물감옥에 던져버리시오. 친위대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군사만 차출해야 하오."

"우물감옥 전옥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명이라고 하시오. 그래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시오."

"알겠습니다."

칼라따까가 일을 치를 때는 언제나 단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친위대장은 인정사정없이 일도양단하듯 일을 처리하는 칼라따까의 처신에 어떤 때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러나 그의 계책은 빈틈없이 용의주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 라다굽따가 불콰한 얼굴이 되어 칼라따까 자리로 오자, 친위대장은 일어났다.



그 시간에 아쇼까왕은 어머니 다르마 대비를 왕궁 다실에서 만났다. 아상디밋따 왕비도 동석했다. 꾸날라를 친아들처럼 키웠던 아상디밋따 왕비는 다르마 대비가 비가따쇼까를 낳은 뒤 산후 조리할 때도 마음을 다해 도왔던 자애로운 여인이었다. 궁녀가 짜이를 내왔다. 다르마 대비가 짜이 잔을 잡지도 않은 채 아상디밋따 왕비를 다실 밖으로 내보낸 뒤 말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십니까?"

"왕자 다섯 명이 사라졌습니다! 왕실이 흉흉합니다. 수시마 편에 선 왕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왕이 되셨으니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자비를 베푸는 성군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실의 모든 귀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마 대비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머니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 자들은 저를 제거하려고 선동했습니다. 수시마 형과 나 사이를 이간질했던 자들입니다. 수시마 형이 왕이 됐더라면 저는 그 자들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그 자들이 아니면 제가 죽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왕이 되어 한 순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불행합니다."

"어머니, 저는 마우리아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통치를 자비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나 왕권을 능멸한 교활한 자는 단호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운명입니다. 공포보다는 자비롭게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륜성왕이 되어 영원히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다르마 대비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은 더 이상 대꾸를 않고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아상디밋따가 들어와 다르마 대비를 위로했다.

"대비님, 왕께서는 누구보다도 외로우실 겁니다. 왕실의 모든 왕자들이 지금도 수시마 부왕님을 그리워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왕이 자비로워지기를 기도할 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구나."

"대비님, 저도 기도할게요. 함께."

"라다굽따 수상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연회중입니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수상밖에 없어. 그러니 사람을 연회장으로 보내 라다굽따 수상을 만나게 해줘."

아상디밋따는 하인을 연회장으로 보내 다르마 대비의 뜻을 전했다. 그러자 라다굽따가 환송연이 끝나기 전에 왕궁 다실로 왔다.

"대비님, 부르셨습니까?"

"조금 전에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말했다.

"대비님, 폐하의 판단은 옳습니다. 지금은 화합하는 시기가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백성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자들이 사라지고 없으니 왕의 동생 비가따쇼까조차 왕궁이 무섭다고 합니다. 선왕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비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도 왕에게 만류했지만 소용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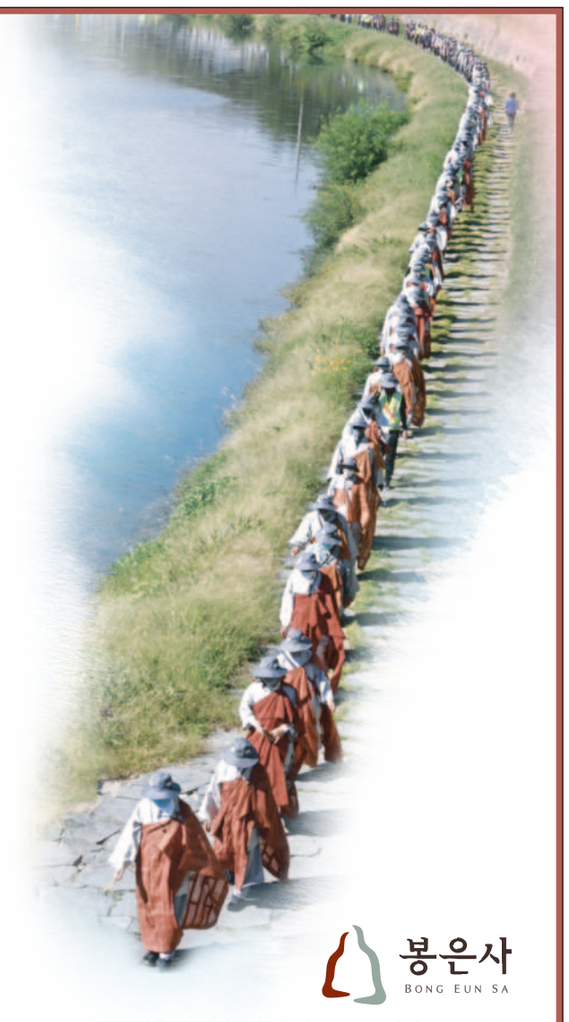
"내일 대왕님께 소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상께서 자비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다굽따 수상은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 다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갔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흥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왕자 몇 사람은 무대로 뛰어올라 무희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술에 취한 관리들이 크게 웃으며 떠들었다. 칼라따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무표정해졌고, 친위대 군사들은 연회장 밖 숲속에서 연회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라다굽따는 연회장의 분위기에 다소 기분을 전환하여 칼라따까에게 술을 권했다.〈계속〉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⑧ 선승의 출가 ④



▶한줄요약
선지식은 둔한 중생에게 거듭 다가가 준다. 중생은 일생에서 세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선승이 만든 선승, 세상이 만든 선승

7. 스님 만드는 스님

월혜와 수월은 선지식의 한 말씀 그 눈빛을 천 둥 번개인 양 간파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도 명백한 것을 놓치곤 한다. 선지식은 둔한 중생에게 거듭 다가가 준다. 중생은 일생에서 세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세 번의 존재전환 기회다. 모두를 향한 법문이나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권유의 모양새를 갖춘다.

영호(映湖 1870~1948) 박한영은 자칭 '일장춘몽 도인'을 만났다. 도인은 매우 강력한 언어로 영호에게 자극을 주었다. 도인이 영호의 법기를 알아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호의 발심은 그 전에 이뤄졌다. 17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봉사에 가서 들은 '생사법문'을 전해 듣고 크게 발심한 것이다. 선지식의 법문은 동산(東山, 1890~1965)에게도 결정적 출가 계기가 되었다. 동산은 이른 시기부터 전통 한학을 배웠는데 그 총명함으로 선생과 어른들의 칭송을 받았다.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면서 주시경과 오세창을 알게 되었다. 이분들이 용성(龍城 1864~1940)을 소개해주었다.

"대중이여, 밥 먹고 옷 입고 활동하는 주인공을 아십니까? 이 주인공을 알면 곧 각자(覺者)이니 깨달은 이는 생사에 걸림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어 안심입명하는 것입니까?"

용성의 법문을 들은 동산은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출세가 보장됐던 서양의의 길을 포기하고 출가의 길을 택했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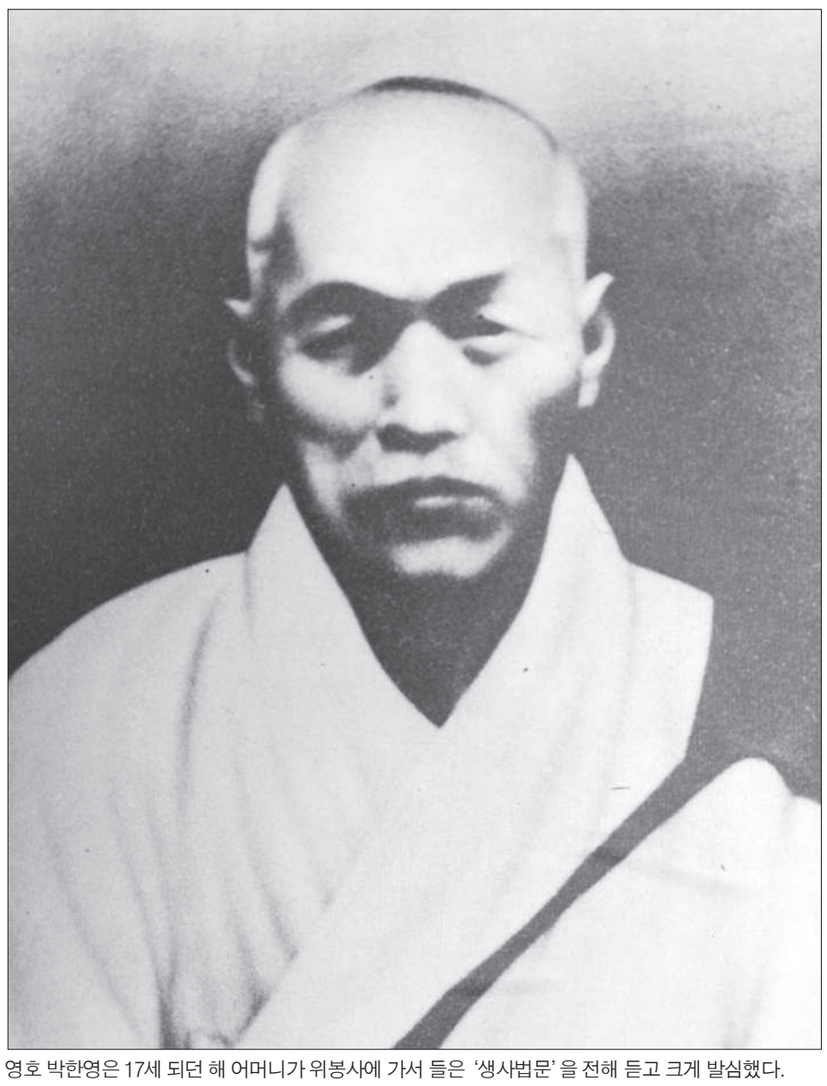
진제(1931~)는 20살 때 해관암에 도인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도인은 석우(石友 1875~1958)였다. 석우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금생에 사바세계에 안 나온 것으로 하고 중놀이를 해보지 않겠는가?"하며 권유했다. "중놀이를 하면 어떠한 장처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니 석우는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라 답했다. 그 말에 강력히 이끌린 진제는 '위대한 부처'가 되자고 출가했다.

인환((印幻, 1931~2018)은 1.4후퇴 때 가족과 이별하고 원산에서 혼자 배를 타고 묵호항으로 와서 부산까지 걸어갔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다. 지옥 같은 피난 생활 중 한 노보살을 만났다. 노보살은 인환에게 밥을 사주고는 "불도를 닦지 않겠느냐?" 물었다. 우물쭈물하는 인환에게 노보살은 10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다시 만난 노보살은 "결심이 됐소?"라고 물었고 인환은 자기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 노보살은 인환을 바로 선암사로 데려갔다. 처음 만난 젊은이에게 출가를 권유한 노보살의 정체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보살들'은 출가 승려들에 대한 지극한 지원으로 한국불교를 지탱해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고개를 숙인다. 또 출가자를 인도하여 절살림 부처님 공부가 지속되게 하는 데도 기여해왔음을 인환의 경우를 통해 알고 놀란다.

혜정(慧淨, 1933~2011)은 고등학교 때 놀러간 봉암사에서 성철을 만나게 됐다. 성철은 인간이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산다고 했다. 생사 문제가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급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 괴상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님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성철은 혜정의 가족 사항을 묻기도 하며 은근히 출가를 권유했다. 학교를 더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혜정에게 성철은 꼭 다시 오라고 이끌었다. 몇 해 뒤 혜정은 봉암사로 다시 갔다. 뒤쫓아 온 부모는 성철과 청담의 말씀에 설득되었다. 혜정은 청담을 은사로 출가하게 되었다.

만공과 용성도 젊은이를 출가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만공은 9살 벽초(碧初 1899~1986)를 한번 보고는 수덕사로 데려가 출가시켰다. 만공을 따라간 벽초는 금강산 유점사와 오대산, 지리산 등 명산대찰을 찾아 치열하게 정진했으니, 그건 만공이 동자승일 때 스승 경허 선사를 따라다니며 수행한 것과 닮았다.

모친전한 법문듣고 출가 발심
피난지 노보살에 이끌려 출가
독립투사에 사형선고 내린 후
극심한 고통 · 참회하고 출가



영호 박한영은 17세 되던 해 어머니가 위봉사에 가서 들은 '생사법문'을 전해 듣고 크게 발심했다.

도문(1935~)의 아버지는 용성의 유발상좌였다. 용성은 도문의 아버지에게 소생 아들이 12살이 되면 출가시키라고 권했다. 도문은 태어나기도 전에 스님이 될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다. 용성에 의해 출가한 도문은 스승의 유훈을 명심하면서 법륜, 학담 등을 출가시켰다. 동산, 도문, 법륜, 학담 등의 출가가 용성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8. 세상 번뇌와 시대 고민

이찬형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서 조선인 최초의 일제 판사가 되었다. 찬형은 효봉(曉峰 1888~1966)의 출가 전 이름이다. 운동 이후 일제는 독립투사에 대한 재판을 조선인인 찬형에게 맡겼다. 한 독립투사가 국경을 넘어와 주재소를 공격하는 전투를 수행하던 중 체포되어 평양 복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다. 찬형은 그 독립투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찬형이 판결문을 읽어가자 그는 부릅뜬 눈으로 외쳤다.

"너는 조선인으로 독립운동은 안 하고 제국의 녹을 먹으면서 독립투사를 사형에 처한단 말이냐? 벌레보다 못한 놈아!"

찬형은 온몸을 떨었다. 사흘 밤낮을 굶고 고뇌했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있는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독립투사를. 이 짓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도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이 아니다.'

찬형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참회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세상을 찾아 나섰다. 판사직을 버리고 아내와 세 명의 아들딸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났다. 그 길은 출가의 길이었다.

만해(卍海1879~1944)가 출산한 아내의 몸을 풀 미역을 사러 가는 길에 금강산으로 출가한 사연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이한 일로 느껴지는 것은 만해가 이 땅에서 동학과 청일전쟁 등을 겪으면서 가진 고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과 시대에 대한 고민과 회의는 더 근본적인 출가인연이 된 것인데 성암(性庵, 1889~1950)의 경우에서 그 점이 더 뚜렷하다. 성암은 10명의 누나 형님이 어린 나이에 다 죽고 나서 11번째로 태어난다. 어머니는 11번째 아들만은 잃지 않으려고 온갖 공덕과 지성을 다 들였다. 그 덕에 성암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 4,5 세가 되자 새 옷만 입혀주면 헐벗은 아이에게 벗어주고 돌아왔다. 떡이나 별식이 생기면 들고 나가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1살에 사서삼경을 다 통독하고 혼인을 했다. 17살 되던 해 첫아들을 얻어 사랑을 쏟게 되니 가족과 동네 사람과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해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저수지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부자를 찾아가 큰돈을 빌려 저수지를 축조했다. 17살 소년에 대한 세인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나 3년 뒤 쏟아진 폭우에 저수지 둑이 터지니 그 아래 일곱 동네가 다 물에 떠내려갔다. 수해를 변상하느라 고생한 성암도 돈을 빌려준 부자도 거지 신세가 되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화근이 되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회의가 커졌다. 야반도주를 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가사 장삼을 걸친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합장 배례하는 광경을 보고는 정신이 맑아졌다. 자기가 불교와 인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장안사로 간 것이 출가수행의 시작이었다.

보문(普門, 1906~1956)은 유년시절 고향 문경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혼인을 하여 아들도 둘 두었다.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민족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항적 학생운동에 가담했고 사회주의 운동과도 연루됐다 한다. 식민정책을 비판했다 하여 일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부산항 항만노동의 현장으로 들어가 숨었다. 항만 하역장의 반장으로 일하다가 동포의 노임을 착취하는 업자의 행실에 분노하여 단도로 업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았다. 노동자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는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향했다. 민족이 독립해야만 민중이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강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금강산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유점사와 장안사로 갔다. 마하연에서 발심을 하여 마침내 오대산 상원사로 내려와 한암을 은사로 출가를 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정영(1925~1995)은 남쪽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국전쟁으로 분단이 되면서 남쪽에 혼자 남게 되었다.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상공부 특채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 시절 공무원의 부패상을 보고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며 사표를 냈다. 장관이 나서서 만류했고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고 구슬리면서 정영을 붙들었다. 끝내 정영은 사직을 하고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다. 교사 노릇을 하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세상을 목도하고 아파했다. 이렇게 삶을 고뇌하던 중 용성의 뒤를 이어 '깨달음 운동'을 펼치고 있던 소천(韶天 1897~1978) 선사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정했다. 세상에 대한 고뇌는 정영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었던 맞춤복'을 드디어 입게 했다는 점에서 큰 아이러니다.

자살한 원봉(圓峯, 1942~1992)을 위해 수많은 수행자들이 천은사 49재에 참석하여 애도와 축원을 한 이야기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암세포가 뼛속 곳곳에 깃들어 자신에게나 주위 분들에게나 고통과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발향' 시키지만 '뭇 삶의 질곡과 고통을 말없이 받아들이는 지혜의 땅' 지리산에 당신의 육신을 뿌린 것이다. 그래서 '허상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편안해지고 싶다는 임종게를 남겼다. 생의 이런 마무리는 그 출가 사연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봉은 출가 전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자 생활을 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의 삶을 추구한 것인데 더 완전한 보살적 삶은 출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가했던 것이다.

원봉의 경우를 통해서 출가는 스스로 죽이는 것으로써 중생을 해방시키는 것인 줄을 짐작하게 된다. 출가는 안과 밖에서 함께 일으킨 혁명이었다. 대사즉생(大死卽生)의 가르침을 주며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다. 효봉의 출가도 뜻밖의 극적 전환이 아니라 자연스런 탈바꿈이며, 임시로 법관이 되었지만 결국 본질로 돌아갔다고 본 견해도 이런 가르침과 이어질 것이다.

〈연세대 객원교수〉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⑧ 여섯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왕



▶ 한줄요약

여섯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등장하는 본생담 〈샤단타(Chaddanta) 자타카〉는 질투와 시기심에 자신과 소중한 이들까지 파멸시킨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다. 이 본생담은 5~7세기 중앙아시아 석굴 벽화에서 다수 도상화돼 나타난다.

질투·시기, 나 자신도 망친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가장 해악을 끼칠 때가 마음에서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며, 시기란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에게는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라고 물으며 갈등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질투로서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여 열심히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상대방이 소유한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감정이 시기(猜忌)로,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타인이 잘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소유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사람일 경우,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부감과 상실감을 정신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과 같은 파괴력을 지닌다고 한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도 부처님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심에 자신과 소중한 이들까지 함께 파괴시킨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현우경(賢愚經)〉, 팔리어로 기록된 〈자타카(Jataka)〉에는 어리석은 시기심으로 자신을 두 번이나 죽인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육아상(六牙象) 본생담' 혹은 '샤단타(Chaddanta) 자타카' 라고 불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성 출신의 어떤 젊은 비구니가 부처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분의 아내가 된 적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생이 떠올랐다. 먼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나시국의 샤단타라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가진 아름다운 코끼리 왕이셨을 때, 그분의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였던 전생을 생각해 내었다.

이러한 전생이 떠오르자 그 기쁨에 감격했으나, 곧 다시 코끼리왕 샤단타에게 소눗타라라는 사냥꾼을 보내어 독화살을 쏘아 그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었음을 기억해 내었다. 샤단타는 히말라야의 숲속에서 8만 마리의 코끼리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오묘하게 빛나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지녔으며, 마하슈바다와 큘라슈바다라는 아름다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어느 날 샤단타가 사라쌍수를 코로 흔들었는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은 첫째 왕비인 마하슈바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붉은 개미와 나뭇가지는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에게 떨어져 샤단타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더해서 샤단타가 첫째 왕비에게만 아름다운 연꽃을 선물하는 모습을 본 둘째 왕비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다음 생에 샤단타에게 복수를 할 것을 맹세하며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 목숨을 끊었다.

여섯 어금니 가진 코끼리 본생담
질투로 자신과 타인 파멸로 몰아
5~7C 중앙 아시아 벽화 도상화
"누군가를 미워말라" 가르침전해

얼마 후 큘라슈바다의 소원대로 선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여인으로 태어나 바라나시의 왕비가 되어, 샤단타에게 복수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왕에게 거짓으로 큰 병이 든 행색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심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에게 말한 왕비의 소원은 히말라야에 사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지닌 흰 코끼리의 어금니 한 쌍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전국의 사냥꾼을 모았는데, 그중에서 사냥꾼 소눗타라에게 왕비가 샤단타가 사는 곳을 알려주며 코끼리의 어금니를 뽑아오라고 명령했다. 수행자처럼 보이려고 승려의 가사를 입은 사냥꾼 소눗타라는 마침내 샤단타의 경계심을 허물고 기회를 엿봐서 독이 묻은 활을 쏘아서 그를 붙잡고 어금니를 뽑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톱으로도 칼로도 어금니를 뽑을 수가 없었다. 그때 코끼리 샤단타가 왜 자신의 어금니를 뽑으려고 하는지 물으니 사냥꾼은 왕비의 소원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샤단타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코로 어금니를 뽑아서 사냥꾼에게 주고 죽음에 이르렀다. 바라니시의 궁궐로 돌아온 사냥꾼은 왕비에게 샤단타의 빛나는 어금니 한 쌍을 올리며 지난 상황을 설명하자, 왕비는 전생에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코끼리 왕 샤단타를 떠올렸다. 왕비는 자신이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는 슬픔에 가슴이 찢어져 죽음에 이르렀다.



그림①. 아잔타 17굴 벽화인 〈샤단타 자타카〉부분으로 5세기에 조성됐다. 어금니를 뽑는 샤단타가 묘사돼 있다.



그림②. 아잔타 17굴 벽화인 〈샤단타 자타카〉부분. 샤단타의 죽음을 듣고 슬픔에 누운 왕비가 그려져 있다.

위의 이야기에서 샤단타 코끼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며,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와 바라니시국의 왕비 선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젊은 비구니의 전생이다. 그리고 사냥꾼 소눗타라는 당연하게도 제파달다의 전생이다. 이 '육아상 본생담' 과 관련된 그림은 기원전 3~2세기경 조각된 인도의 바르후트(Bharhut) 스투파에서부터 출현하며, 기원후 5세기경 조성된 아잔타 17굴과 6~7세기경 제작된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 쿠차(庫車, Kucha)의 키질(克孜爾)석굴 7·14·17·38·206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5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 17굴의 〈샤단타 자타카〉를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넓은 화면에 흰색의 거대한 코끼리가 자신의 코로 상아를 휘감아 뽑고 있으며, 그 앞에 활과 화살을 들고 앉아 있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앞서 살펴본 본생담 경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흰 코끼리는 부처님의 전생인 코끼리 왕 샤단타일 것이며, 활과 화살을 들고 샤단타를 바라보는 인물은 데바닷타의 전생인 사냥꾼 소눗타라로 보인다.

그림의 정황상 샤단타가 코로 어금니를 뽑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소눗타라에게 독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라나시의 왕비가 자신의 어금니를 원해서 소눗타라가 깊은 산속까지 샤단타를 죽이러 왔음을 알게 된 시점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소눗타라를 원망하지 않는 샤단타의 마음과 스스로 자신의 어금니를 뽑아주는 샤단타의 고통은 감히 희생과 보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그림①)

그리고 샤단타의 어금니를 가지고 바라나시 왕궁으로 돌아온 소눗타라가 왕비에게 한 쌍의 어금니를 쟁반에 받쳐서 올리는 장면이 묘사돼 있고, 맞은편에 침상에 누운 여인이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왕비가 소눗타라가 샤단타를 죽이고 어금니를 얻은 과정을 들으며, 전생에 사랑했던 남편을 죽였다는 괴로움과 충격에 쓰러져 가슴이 찢어져 죽었다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②)

아잔타 17굴처럼 서술적으로 본생담의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르후트 스투파나 키질 석굴처럼 하나의 공간에 이야기의 가장 핵심 부분만을 도해하는 경우도 있다.

키질석굴 17굴의 〈육아상 본생도〉는 위의 아잔타 17굴의 〈샤단타 자타카〉와 같은 내용을 도해하고 있지만, 마름모 형태의 화면에 하나의 장면만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화면구조는 키질석굴에 그려지는 본생도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각 본생담들에서 갈등의 최고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강조하여 도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름모 형태의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었던 함정에서 나와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인물이 보인다. 이 장면은 사냥꾼 소눗타라가 샤단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수행승으로 보이려고 승려의 가사를 입고 가사 안에 독화살을 숨기고 있다가 샤단타 혼자 있는 기회를 엿보다 마침내 독화살을 쏘았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활의 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냥꾼 소눗타라를 바라보는 파란색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배경인 바라나시 왕궁도 히말라야 산속의 많은 코끼리들도 생략된 그림이지만, 충분히 본생담 이야기의 앞뒤 배경이 짐작되게 그려졌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가슴 졸이며 제발 샤단타가 소눗타라가 쏜 독화살을 맞지 않았으면, 차라리 멀리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긴장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와 바라나시 왕국의 왕비가 생을 거듭하면서 시기심과 복수심에 자신을 버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상대까지 파괴한 결말이 너무도 안타깝고 허무하다. 최고의 복수이자 최선의 자비심은 깨끗이 잊고 선하게 아주 잘 사는 것이라는 흔한 말이 너무도 가슴 깊이 와닿는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박원자의 母情佛心 31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



▶ 한줄 요약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출가를 시도한다. 배고픈 거지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신실한 불자인 모친은 크게 상심했다. 잠시 출가를 미룬 자우 스님은 이후 백흥암으로 출가했고, 결국 모친도 인정하게 됐다.

"저는 스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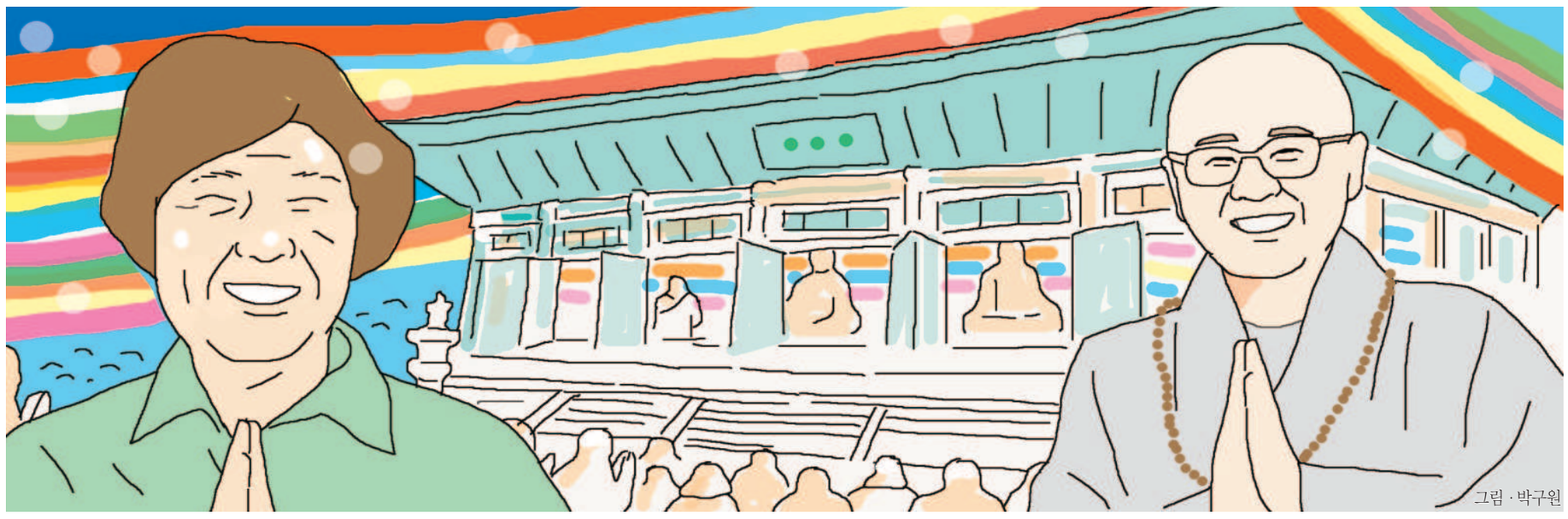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배고픈 거지 그냥 보내지 않던 모친
"출가하겠다"는 셋째 딸 결심에 시름
두 번 시도 끝에 출가… 모친도 인정
이젠 엄만 수많은 생명위해 기도한다

자우 스님이 마흔 살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도 분들과 성지순례를 떠난 송광사에서의 일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노보살 한 분이 스님을 불렀다.

"스님, 무서워요!"

이때 스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 스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구나, 저렇듯 연만하신 분들이 자식 같은 나에게 무섭다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스님이구나!' 당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그때부터 스님은 자신과 인연이 닿는 불자들이 마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을 더욱 견고히 했다.

스님은 지금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합장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발원한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풀리길, 그대가 평안하시길!"

뭇 생명 모두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사는 스님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각별히 챙기시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 스님은 강원도 영월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대여섯 살 때 어느 봄날의 기억이다. 어머니는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을 보면 집으로 불러들였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에게 '옷이 이게 뭐니' 하시면서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입혔다. 그리고 마루에 상을 차려 따뜻한 밥을 먹였다. 옆에 앉아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느냐' 고 따뜻하게 묻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돌봐야 할 자식이 여섯에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한편 밭농사까지 지은 어머니였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는 부모가 모심고 밭 매러 나간 사이 혼자 놀다 흙투성이가 된 옆집 아이를 보면 데려다가 씻기고 밥을 먹여 보냈다.

셋째 딸 자우 스님도 어려서부터 유난히 마음결이 고왔다. 동네에 놀림 받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지능이 낮은 데다 얼굴은 뱀처럼 생겨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뱀구리' 였다. 그 애의 부모가 뱀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해주었다. 그 애와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다. 대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도 친구 하나 없는 저 애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항상 그 애와 놀아주었다. 애들이 저런 애랑 논다고 놀려도 '불쌍한 친구와 놀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든 화려한 사람보다는 수줍어하거나 외롭게 앉아 있는 사람이 먼저 눈에 띄어 그 사람 옆에 앉아 이야기하곤 했어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던가. 참, 타고난 수행자다.

일곱 살 때 읍내로 이사 왔을 때도 어머니는 늘 바쁘셨다. 구멍가게를 하고 틈틈이 농사를 지어야했던 어머니는 찬바람 휭휭 부는 겨울밤이면 걱정스런 얼굴로 말씀하곤 했다.

"우리 집에 오던 아무개는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옆에서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있던 여섯 딸들도 '맞아, 그 사람 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며 잠들곤 했다. 항시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야 자손이 잘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던 다감한 성정의 어머니였다. 하루는 학교에 가기 전 아침상 자리에서 딸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어젯밤에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가봤더니 그 집 아들애가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주어서 중학교에 못 가게 되었다며 서럽게 울고 있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왔단다."

인정 많고 성실한 부모님 덕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 면사무소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이나 부지런하셨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출근하셨고, 퇴근 후에도 논에 다녀와 저녁을 드셨다.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 으레 밭으로 가서 일을 돕는 게 집안의 불문율이었다. 휴일엔 식구들 수대로 도시락을 싸서 버스를 타고 예전에 살던 시골집 근처 밭으로 가서 일했다. 아버지가 식구 수대로 밭에 늘어놓은 호미를 하나씩 집어 들고 딸들은 밭을 맸다. 밭 매는 일과 하나가 되었던 무념, 무상의 시간이 길어진 날엔 버스가 끊기기도 했다. 그러면 먼 길을 걸으며 식구들 모두 노래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행복한 가족을 내려다 볼 때쯤, 딸들이 소리치곤 했다.

"와, 저 별들 좀 봐. 아름답지 않아?"

언제나 호호,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던 이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태어나 6녀 1남이 되었다. 어머니는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얻고 기뻐하셨다. '3천배를 하면 부처님이 한번 돌아보신다고 하던데' 라는 어느 절 큰스님의 말씀을 듣고 3천배를 한 끝에 부처님오신 날에 아들을 낳았던 터라 신심이 한껏 깊어지셨다. 아침마다 두 시간 동안 '능엄주', '신묘장구대라니' 등 수행을 깊이 했다. 절 일을 도맡아 하셨다. 차를 몇 대씩 대절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신심과 딸의 출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일까. 어느 날 셋째 딸이 출가에 대해 은근히 떠보자 어머니는 펄쩍 뛰셨다. 왜 안 되느냐고 묻는 딸에게 어머니의 답은 간단했다.

"내 딸이니까 안 돼!"

신심이 워낙 깊으시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왔다.

잔잔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 물었다. "웃음꽃이 만발하던 집에 정적이 감돌았겠네요. 다정다감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스님의 출가 동기가 궁금합니다."

"원주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어느 절 고등부 법회에서 하는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불교에 매료되었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는데 불교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내내 법회에 나갔고 대학에 들어갈 땐 물리학과를 선택했죠. 나름 불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출가를 고민하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잠시 쉴 때였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연등국제회관에서 영어로 불교를 가르친다기에 찾아갔다. 공부도 하고 회관의 일을 도와주며 지내고 있을 때 무진 스님이 출가를 권했다. 눈빛이 푸른 외국인 비구니 스님이었다. 싫다고 했다. 만날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스타일의 그 재미없는 스님 생활은 꿈도 꿔보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대로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무진 스님이 직격탄을 날렸다.

"결혼은 바보나 하는 거야. 너는 바보가 아닌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충격이었다. 공부를 마치면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여겼다. 무진 스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면서 영원한 사랑은 결코 없다고 했다.

"출가는 작은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을 선택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집 앞에서 연인을 기다리다 꽃을 선물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남자도 결혼을 하고 나더니 바로 싸우기 시작했다. 결혼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 즈음이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는 〈법구경〉의 구절이 눈에 쏙 들어왔다. 청주 안심사에서 매일 2천배씩을 하면서 〈지장경〉을 읽다가 드디어 결심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의 중생들을 보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저들을 잠시라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구절을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출가가 이런 길이라면 가치 있는 길이겠다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했죠."

집으로 돌아와 울산 석남사로 출가한다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왔다. 사흘 만에 큰언니가 석남사로 찾아왔다. 강인한 어머니가 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고 했다. 딸이 산으로 갔기에 산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울고 계시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고향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죽은 자식 살아온 듯 좋아하셨다. 혹여 내가 잘해주지 못해 집을 나간 것이 아닌가 싶었던 어머니는 값비싼 옷도 사주셨다. 운전면허증을 따라며 학원에 등록도 해주셨다. 어머니께서 여한이 없도록 주시는 것을 다 받았다. 행복해하는 어머니 곁에서 한 달을 보내고 서울로 가서 취직하겠다며 서울 집으로 갔다.

언니, 동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주일 만에 집을 나와 은해사 백흥암으로 갔다. 다행히 행자생활이 끝나고 수계를 할 때까지 식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훗날 어머니께서 여쭈니 '출가한 자식을 잡아놨는데도 다시 출가한 것을 보니 아이고 팔자인가 보다 했다' 고 하셨다.

아버지에게 '당신이 절에 다녀서 아이가 출가했다' 며 원망을 받았던 어머니는 딸이 수계를 하자 모든 것을 수용하셨다. 있는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임을 아신 어머니였다. 자식의 출가와 함께 당연히 기도도 수행도 깊어졌다.

"아침 기도 때마다 제가 훌륭한 스님이 되기를 발원하고 있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었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님인데, 그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시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올해 여든두 살이신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 자우 스님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던 방송을 들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산천의 아름다운 소식을 댓글로 전했다. 딸 스님은 영월의 꽃 피고 뻐꾹새가 우는 고향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항상 일기를 쓰면서 갈고 닦았던 어머니의 빼어난 글 솜씨가 딸 스님의 방송에서 빛을 발했고, 시청자들은 감동으로 어머니 김옥녀 여사의 마음을 읽었다.

스님의 어머니는 이제 딸 스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지침이 없는 딸 스님이 어머니 눈에는 이미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이다. 〈작가〉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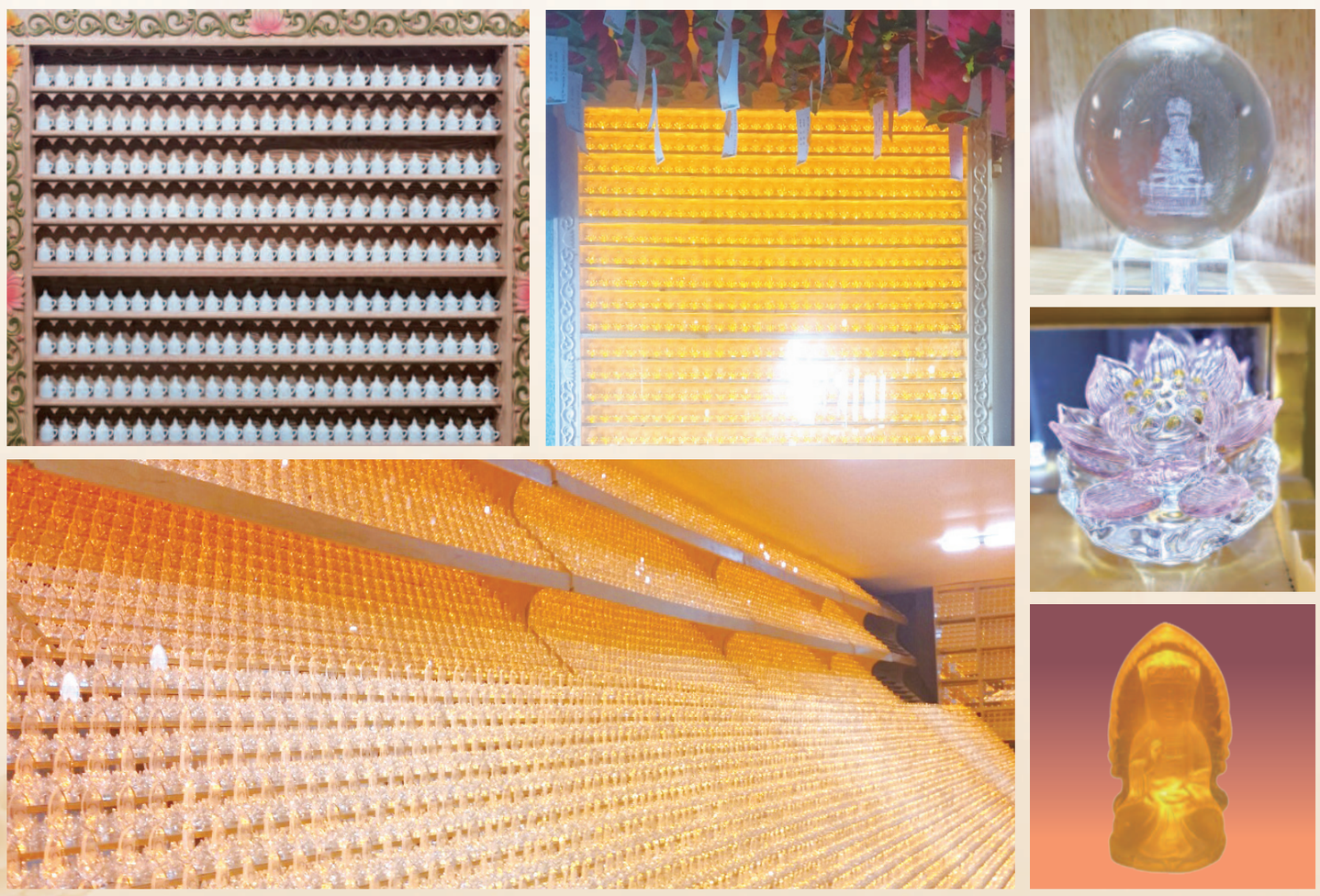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5호 | 13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 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5883-2255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모셔갈분 찾습니다.

010-5353-3936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010-6893-5040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8620-430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가피와 맞춤기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부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통도사 산내 암자

010-5499-1211

공양주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조건은 전화상담

010-8707-349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찰 세무 및 회계 신고대행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우리 사찰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 **사찰 회계 장부 및 결산서 작성 대행**
-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전화 : 051-996-0308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각종비법 전수원 (各種秘法傳修院)

귀문 비법 신공 鬼門秘法神功 **와룡 비법 신공** 臥龍秘法神功
육효 비법 신공 六爻秘法神功 **택일 비법 신공** 伏日秘法神功
풍수 비법 신공 風水秘法神功 **지지 비법 신공** 知止秘法神功

장애스님, 보살 무료 Dau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남녀 4~50대 암자에서 수학 인도 기다립니다. 02-904-337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5호 | 14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3평, 시설금 7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 도배, 장판, 음향)
- 5년전 인수금액보다 5백만 절상

보문산 지장사 무진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344~43번지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6억

010-3640-312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010-4999-562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명지동
- 건물 30평(법당1, 방5)
- 시내와 인접
- 권리금 가격만 받음
- 가액 : 7천만원

010-2596-62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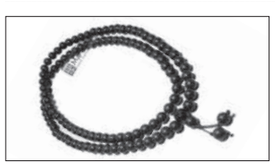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끊을 것 없는 無生 경지 진정한 열반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⑯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 그리고 맨 마지막 몸(最後身)을 받은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였으므로 저마다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지 못하였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 하고, 허물을 모두 여읜 해탈이 되지 못하므로 나머지가 있는 청정이라 하고, 완전한 청정이라 하지 못하며,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다할지언정, 완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남음이 있는 해탈과 남음이 있는 청정과 남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남음이 있는 고(苦)를 알았고, 남음이 있는 집(集)을 끊었고, 남음이 있는 멸(滅)을 증득하였고, 남음이 있는 도(道)를 닦았으니, 이것을 부분적 열반[少分涅槃]을 얻었다 합니다. 부분적 열반을 얻은 이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향하는 것이라 합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열반의 개념이 달라졌다. 열반(涅槃)이란 원래 범어 Nirvama를 음사한 말로 적멸(寂滅), 멸도(滅度), 원적(圓寂)이라 번역한다. 때로는 취소(吹消)라고도 번역했는데 바람에 촛불이 꺼지듯이 번뇌의 불길, 혹은 욕망의 불길을 꺼버렸다는 뜻이다.

대승에서는 이승들의 수행을 평가절하하여 번뇌를 완전히 끊은 경지가 아닌, 아직도 끊어야 할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으며, 따라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다. 열반을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으로 나누는데 이 장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무명주지에 덮여있어 무명이 남아 있으므로 끊어야 할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금 부분적으로 열반을 얻은 것이지 완전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진정한 무여열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해탈도 유여해탈과 무여해탈로 나누어 말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아욕다라삼막삼보리심을 발한 보살은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① 광대심(廣大心)으로 일체 중생 전부를(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九類衆生)이라 한다) ② 제일심(第一心)으로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③ 상심(常心)으로 중생을 멸도해도 실로 멸도한 중생이 없어야 하며 ④ 부전도심(不顚倒心)으로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강경〉의 사심(四心)에 머물러 사상(四相)이 없는 경지가 〈승만경〉에서 말하는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경지이다. 열반이라는 말이 소승과 대승 그리고 경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구경열반(究竟涅槃)'이란 말이 깨달음의 극치인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로 오온(五蘊)도 없고 자아(自我)도 없다는 뜻인데 이 경지를 무여열반으로 보는 관점이 〈광백론(廣百論)〉 등에 설해져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말하기를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여의고 필경에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성유식론〉에는 열반에 4가지가 있다고 설하면서 뜻에 차이가 있다 하였다. ① 일체법의 실성인 진여를 가리켜 본래자성청정열반이라 하였다. 아무리 번뇌에 덮여 있어도 자성은 본래 청정하여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② 유여의열반으로 번뇌장을 끊어 진여가 나타났으나 이숙(異熟)의 고과(苦果)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다. ③ 무여의열반은 유여의열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숙의 고과가 없어져 남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④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라 하였다. 무주처열반은 번뇌장(煩惱藏)과 소지장(所知障)이 둘 다 없어지고 나타난 진여로 보살들이 이 열반을 증득해 큰 지혜를 이루어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미계(迷界)를 떠났음에도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대비심 때문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무는 곳이 없다는 뜻에서 무주처열반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중 ①은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각진심(本覺眞心)을 열반으로 본 것이고 ②와 ③은 이승(二乘)들이 얻는 열반이다. 대승의 관점에서는 ④의 무주처열반이 완전한 열반이 되는 것이다. 번뇌를 두고 말할 때 번뇌를 끊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소승에서 말하는 열반이고 대승의 열반은 번뇌가 공해져 끊을 것이 없는 무생(無生)의 경지가 진정한 열반이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신앙 염불수행 칭명서 시작

〈稱名〉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㊴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에는 타력적인 수행과과 자력적인 수행이 함께 융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력적인 수행이란,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가피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종교적 가피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으로 염불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력적인 수행이란, 수행자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닮아 완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구제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음신앙의 염불수행에서는 신앙적 가피를 얻기 위한 타력적인 칭명염불수행과 성불을 위해 중생구제의 대승보살도를 함께 실천하는 자력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음신앙의 올바른 염불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상을 기억하는 칭명염불 수행과 함께 대비심을 토대로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도를 함께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의 관음신앙 염불수행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얻어 개인의 고난을 벗어나 복락을 구하는 것이 수행자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승불교가 발전되면서 '상구보리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이념에 입각해 깨달음과 자비를 함께 실현하려는 성불의 목적이 더욱 강조되다보니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증일아함경〉에서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염불과 함께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 관법(觀法)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몸과 뜻을 바르게 하고 결가부좌하여 생각을 묶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염하며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데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다시 여래의 공덕을 염하라"고 설한 것처럼, 칭명염불 수행은 여래의 공덕을 염하는 '염불'과 여래의 형상을 관하는 '관법(觀法)'을 함께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명염불 수행이 주를 이루던 초기불교의 염불수행과는 달리 대승불교로 나아가면서 염불수행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초기불교의 칭명염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되풀이하여 생각' 하는 칭명(稱名) 염불수행이 주를 이루었지만, 대승불교로 발전되면서 염불수행은 선정삼매에 들어 관세음보살님을 관찰하는 관불(觀佛)이나 관상(觀想)의 염불 수행으로 주된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상·관불의 염불수행은 선종의 선불교와 만나 융합되면서 염불선(念佛禪) 등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에 오면서 칭명과 염불수행은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제법을 관하는 지(止)관(觀) 수행과도 함께 병행되어 실천되어 왔습니다. 즉 염불수행은 유가유식의 수행법과도 결합되어서 선관수행이나 지관수행으로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칭명수행은 유가행과 결합하여, 육근 가운데 이근(耳根)을 통해 소리를 관하는 선관수행을 통해 자심을 증득하는 이근원통의 수행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관음신앙에서의 염불수행은 칭명(稱名)에서 시작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에서의 염불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가피력를 기원하기 위해 믿음을 일으키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하며 칭명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⑯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②

수행은 다른 이와 아무 관계성 없다

"나는 네 가지 범주의 청정한 삶을 실천했다.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삼가는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수행은 누구를 밟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극단적인 네 가지 청정한 삶을 보면 다른 이와 관계없는 오직 자신에 대한 탐구로 수행을 삼고 있다. 이것이 수행에서 청정한 삶의 실천이다. 다른 이와 관계없는 수행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이와 관계있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수행의 바른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변하는 것으로써 수행을 삼으면, 항상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과 같다. 변하는 것은 끝날 것 같지만 끝없이 돌고 돈다. 그러니 주변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신만의 수행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 있다.

오온은 신체의 피부를 경계막 삼아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그 내부를 자신이라 여기고 외부를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여 관찰한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아만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다.

이러한 관찰은 관점이 생겨나는데, 이 관점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잘 관찰하면 자신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무의미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까? 이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관찰한다는 것은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날 때, '나는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느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을까? 그 뿌리는 오온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느낌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회광반조(廻光返照)를 일으켜 질문해야 한다. '지금 느끼고 생각한 것이 내가 느끼고 생각한 것인가?' 만약 나의 일이라면, 나는 일어날 느낌과 생각을 미리 알았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알지 못하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일어난 후에야 느낌과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아는 순간이 모든 의문에 대한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꿰지 못한 단추들이 일시에 꿰어지는 때이다.

'나' 라는 범주 없이 관찰하는 것, 보이지 않는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 이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도 쉬움도 없다.

완전히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나' 라는 생각의 뿌리는 오온이 있는 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끊어짐 없는 것이 앎이 되는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니 지혜가 샘 솟는 것과 같고, 거짓이 일어나니 진리가 뒤따라오는 것과 같다. 그는 그것을 번뇌다, 거짓이다, 말하지 않고, 지혜다, 진리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밖에서 일어나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번뇌니 거짓이니 말하고, 그 말한 자를 자기라 여기고 괴로워하든지 근심하든지 혹은 방도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은 뜻을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어만을 믿고, 언어를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고 말하고, 나는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자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유무(有無)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바른 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봄을 가졌다면 청정한 삶의 실천을 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④ 직장 마음훈련법



▶한줄요약
여러 가지 일을 한번에 처리하는 멀티테스킹은 주의산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싱글테스킹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대신 중간중간 쉼의 시간을 가져라.

일터서 집중력 유지 방법 '싱글테스킹'

직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메일, 문자, 온오프라인 회의, 전화, 마감기한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극도로 산만한 환경 하에서 정보의 과부하를 경험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을 못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끊임없이 방황하는 마음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모습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의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도, 매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의식적이고 습관화된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마음놓침(mindlessness)'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의식적이고 선택적 생활 패턴이면 '마음챙김(mindfulness)'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챙김 훈련은 밀어닥치는 방해물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통해 매순간 자신이 선택하고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쟁같은 일터에서 집중력과 명료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주도적 일상, 즉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챙김 기반의 마음훈련법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다음 소개하는 훈련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활용하기를 바란다.



하나, "의식적으로 현재에 주의를 두는 연습을 하라." 직장에서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보다, 자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업무 중에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온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방황할 때, 그러한 생각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주의를 돌려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업무 시작전에 의도적으로 마음챙김을 하는 시간이나 상황을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좋은 습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둘, "매일 한 호흡 만이라도 충분히 음미해보라." 마음챙김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습관은 우리의 뇌가 마음챙김 상태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직장에서 마음챙김 훈련을 하기위해서 따로 30분 정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챙김 훈련은 오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짧게 해도 상관없다. 마음챙김으로 한 호흡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인 매일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마음챙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례로 업무 시작 전 커피 한잔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휴식시간 또는 점심시간 전후도 좋다. 자신만의 마음챙김 루틴을 만들어 습관화해야 한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번의 호흡을 온전히 음미하면서 알아차리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셋, "싱글태스커(single-tasker)가 되어라." 연구결과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의 효과성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시프트태스킹(shift-tasking), 즉 업무 전환이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을 하게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더 많아지며 집중과 창의성이 약화된다. 마음챙김 훈련은 멀티태스킹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음챙김 훈련은 현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번에 한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밥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는데 온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일할 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힘. 그것이 경쟁력이다.

넷, "3초 멈춤을 가져라." 일상의 대부분은 자동조종(autopilot) 모드로 살아가고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그만 변화에 둔감해지고 주의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는 바로 이렇게 약해진 주의력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챙김은 매일 경험하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마음챙김 알리미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뇌를 깨워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례로 스마트폰에 일정 시간이 되면 진동이 울리게 하여 마음챙김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명상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올 때 즉각적으로 받는 대신에 3초간의 멈춤을 갖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마음챙김 알리미이자 습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데 3초면 충분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
1가지 업무에 몰두하라

중간마다 일정호흡 음미
3초간 멈춤시간 필요해

스트레스를 친구로 삼아
자기 자신을 따뜻이 위로

다섯,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어라." 스트레스와 고통은 우리 삶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는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소진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은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비판단적 알아차림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와 통증, 질병에 직면해 기존 건강 및 의료 돌봄 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주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조차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 준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는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그 때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자각하는 마음챙김 훈련만으로도 내적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나 고통을 자각하는, 즉 알아차리는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다.

여섯, "먼저, 자신에게 친절하라." 현대인들은 남에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잘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자기 비판적인 경우가 많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하필이면 나 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등.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익숙함을 넘어서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절이나 사랑을 베풀기 어렵다고 한다. 자기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 손가락이 베이면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약을 바르고 밴드나 붕대로 보호하면서 치료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알아차리고 치유를 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친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배가 된다. 먼저 나에게 친절하자! 친절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중 하나이다. 친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 실제로 마음챙김은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친절이다.

일곱,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져라."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과의 케럴 드웩 교수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오랜 연구 끝에 발견했다. 바로 '마인드셋(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다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 고 믿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현명한 전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즉, 누구나 자신의 잠재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마음챙김적 관점이 바로 상장 마인드셋 관점이다. 마음챙김은 자신에 대해 협소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인 행위 방식(way of doing)의 습관에서 벗어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본성의 힘을 믿고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 방식(way of being)의 삶이다. 존 카밧진 박사는 이러한 변화를 '의식의 수직적 전환' 이라고 표현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방식, 즉 아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챙김 훈련은 철학적이거나 지적인 학습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적 자기탐구' 이다.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으며, 지속될수록 몸과 마음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조화와 균형은 항상 평정심과 함께한다. 평정심 속에서 흘러 넘치는 지혜와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쓸 수 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말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마음챙김 기반의 마음훈련으로 삶 속의 행복을 기원해본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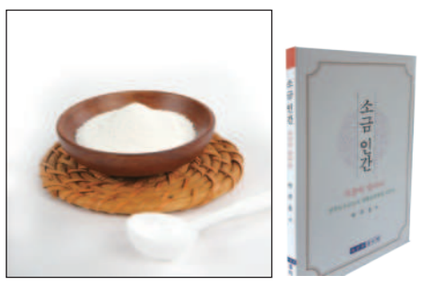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행 스님

몰락 놔 버리되 그대로 여여하게 하라

꽉 차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적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앉으셨다 할지라도 우주 법계가 꽉 차서, 이 방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게 그 자리에 우리는 한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소에 가나 법당에 가나 어디를 가든지, 딴 사찰에 가든지 딴 기독교에 가든지 간에 내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가짐가짐을 그대로 갖는 것을 원했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남이 그런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부처님 불상을 불신하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람을 불신한다거나 아는 사람을 높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런 가짐가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누구나가 불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생활이나 또는 이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시는 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할 것은 누구한테나 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력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나 여러 부처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마 증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몰락 다 놔 버려라." 하는 데서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다 몰락 놔 버리라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랑 놔 버리라는데, 놔 버리면 허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안팎이 기울지 않게 생활을 해 나가야만이 그게 정상으로서의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락 놔 버리란다고 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몰락 놔 버려라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러는가. 누구나가 내공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법계가 다 공해서 다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다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생각 이 생각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공했다는 얘깁니다. '몰락 놔 버려라' 하는 거하고도 아마 거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놔 버리되 그대로 여여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올라가서 부처님을 끊어 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변소간에 가든 어딜 가든 부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데 계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탑돌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탑돌이를 하고 들어온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탑돌이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 탑이 성스럽고 부처님의 자리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들이 저렇게 그 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탑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 진정한 마음, 그 수많은 우주간 법계에 위로는 삼세의 부처님들이나 역대 조사들, 선지식들,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친 그 내공의 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전을 돌아도 다 끝이 없는 돎이 바로 탑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탑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 탑이 있는 데 거기 부처님이 계신데….' 요러는 고정된 관념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유의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그 향과 밝음이 이 대천세계에 다 비추었으니…. 그러나 우리 내공에 있는 그 마음이, 그 밝음이 없다면 그 밝은 빛을 서로서로가 상응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자 해서, 또 내 마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린다 할 때 예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의 내공이 있는 겁니다. 내공이 없다면 바로 송장이 될 것이고 분별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또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이 삼합이 바로 삼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종합돼서 한데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자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 내공에 모든 걸 예배 올린다 하는 건데, 어디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내공의 부처님은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원에, 어느 도량에 갔다 하면 벌써 법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해서 혼자 먹는 거 보셨습니까? 혼자 일해서 혼자 먹고 혼자 사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 여러분은 불성도 똑같고 같이 움죽거리고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자기 개별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먹을 때는 각각 먹지만 하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올릴 때에, 예라는 것은 항상 위의 부처님의 마음이 내 내공의 마음이니 내 내공과 그 부처님의 내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위에다가 예배를 올리는 거죠. 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는 바로 항복을 시키는 겁니다. 숙연하게 항상 고갤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자기 혼자만이 무엇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운다면, 또 우리가 자기 혼자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자기 지금 육신과 더불어 망가지는 법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혼자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을 설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웠건만 '나는 그렇게 불태운 사이도 없고 말한 사이도 없고 그러니 너희들, 잘 생각을 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전에 참, 처음 발견하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세울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예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도 조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올리면서 바로 자기 주인공과 부처님의 주인공,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빛이 온 누리를 비춰 줄 수 있는,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믿고 어떡하다가는 큰코다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공의 그 주인공 자체가 바로 전체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올릴 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냥 앉아 계신 그 부처님이 왜 그렇게 높고 광대무변하냐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보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더 행을 잘하시고, 더 말도 잘하시고, 더 우주 법계를 싸고 뒤집었다 젖혔다, 뒤집었다 젖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여러분 내공의 그 마음 자체와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삼배를 올리는데, 예전 같으면 삼배를 올리고 난 뒤에 뒷걸음을 일곱 번을 치고서 다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나는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윗자리에다가 예를 올리고, 배(拜)라는 것은 내 육신과 마음, 사량적인 이 마음과 육신이 거기 그저 '예배 올립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뿐만 아니라 위로 삼세 부처님들, 조사들, 선지식들한테 예배를 올리고 아래로는 자기를 자기가 굴복을 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락 놔 버리라고 한 것은, 놔 버리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는 내 내공의 불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에 조금도 어김없이 나갈 수 있게끔 그 바란스를 맞춰 주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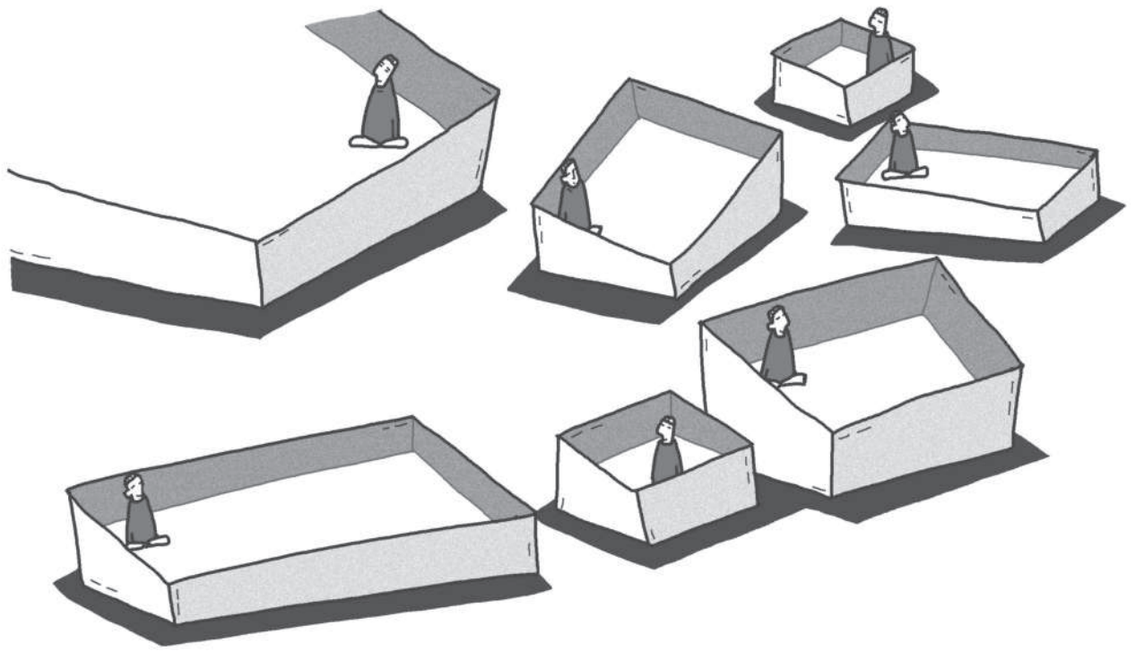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자리에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 선법 도리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나의 진정한 참나는 무시하고 내 육신 본의로서 산다면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윤회에 끄달리고, 또 이렇게 나와야 하고, 또 짐승의 몸을 받을지 축생의 몸을 받을지, 사람의 몸을 받아서도 가난하고 못된 자식을 두거나 또 그만한, 차원이 낮은 부모를 만나거나 이래서 우리가 부딪치고, 그런 부딪침을 또 어떻게 당하렵니까? 다 몰락 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끄달리는 사람도 역시 끄달리는 겁니다. 내 중심이 없다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끄달리고 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끄달린다면 앞으로 자기는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느냐 이러겠죠.

줄창 말하듯이, 여러분이 기본 상식과 양심과 교양, 이런 것은 타고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등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70% 80% 90%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해롭지 않게 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것도, '그것도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 올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부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를 올리고 또 배를 합니다. 자기 하나하나 움죽거림에 의해서 항상 자기 내공에서 하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항상 예배 올리는 것이요, 항상 탑돌이를 하는 것이요, 항상 향을 피우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어째서 갖다가 올려야만 하느냐.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만 먹지 밥을 왜 먹습니까? 아, 마음으로만 먹지 왜 밥을 먹어요? 마음으로만 먹어도 배부르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잡숴요. 그리고 벌이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죠. 어디까지나 부처님 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밥을 먹되 내가 한 그릇을 갖다 놓고 위로 예를 올리고 자기 한마음이…. 한마음 도리란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의 삼세의 부처님들이 다, 유생 무생의 어떠한 생명도 빠짐없이 한데 합쳐서 내 내공에 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그 공양을 다 올리고도 남음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되 사원에 오면, 법당에 올라가면 공양 한 그릇 올리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안팎이 없이 그렇게 겸손하고 알뜰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법당에 와서 아무렇게나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만치 아무렇게나 될 것입니다.

향도 내 마음의 향입니다. 여러분이 향 한 개비를 꽂을 때 그 방 안에 그윽하게 향냄새가 나듯이 내 마음의 향기는 우주를 싸고돌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 모든 유생 무생과 부처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 이 내공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같이 그 향기가 이 우주 법계를 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있고, 이 공기라는 말을 낸 것도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하루 얼마씩 사서 사신다면 아마도 바가질 들고 그냥 무척 애를 쓰고 돌아다닐 겁니다. 또 물을 사서 산다면, 지금도 팔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을 제가 끔들 다 사서 살아라 한다면 불, 물, 공기 이런 것 다, 흙 이런 거 사러 다니느라고 볼일 못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고마운 줄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한데 합쳐서, 공해서 그 많은 마음들이 한데 합쳤기 때문에 태양도 형성시켰고, 바로 우리들 몸을 형성시키기 이전에 벌써 이 지구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지구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 마음들이, 한데 합친 마음이 바로 정원을 꾸민 겁니다. 그 한데 합친 마음이 그렇게 해 놓곤 자기네들이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질척질척한 데서 나고 화해서 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향 한 개비를 꽂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으로다가 그 모두를 한데 합친 그 예를 올리는 배(拜)를 내가 한다면, 그 향 한 개비를 꽂는데 이와 더불어 같이 꽂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배를 하고 이 마음이 한데 합쳐진 한마음은 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침반이 되고 운전수가 돼서 그렇게 중계 역할을 잘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육신과 더불어, 내 지금 마음과 더불어 이 내공에 바로 그 포괄된 부처님의 마음과 응시가 됩니다. 응시가 돼서 서로 상응하면서 해 나가는데 안팎이 없이, 지장 없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 한 개비 불 하나를 꽂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불의 심지가 바로 댁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심지가 마음이면 그 마음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몸뚱이가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따뜻한 기운이 나오며 어떻게 빛이 비칠 것입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켜지 않고 마음으로만 켜세요." 그러면 잘 켜질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팎이 없이 켜라 이 소립니다, 안팎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배를 하고 예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자기 자성불에, 포괄된 자성불에게, 우주를 덮고 있는 자성불에게 예를 하고 배는 자기 몸뚱이 육신이, 사량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상시에 우리가 밥을 수저로 떠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그 점도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습니다. 무의 법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유의 법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중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남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내면 그대로 그냥 여여하게 법이 되고 빛이 나고 향기가 풍기고 이렇게 되고, 한생각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감춰지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그대로 화신으로서 무에나 유에나 다 움죽거리게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여한 부처님의 편안한 그 법을, 편안하다 편안치 않다 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편리한 법을 우리가 잘 선택하려면 안팎이 없이 어디 하나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내 한 마음이요, 부처님의 몸이 내 한 몸이니 어찌 내가 예배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배를 올린다면 그게 다 한마음 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하루 보름이 돼도 '이거 뭐, 내가 내 마음 찾으면 된다는데.' 이러고선 그냥 불뚝불뚝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라면 자기 부처한테도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항상 자기 자만심이 즉 자기 그 주인공의, 그 부처님의 마음 자체 위에 서서 항상 잘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바란스가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량이 나오더라도 내 주인공 그 자체, 그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나 하나의 마음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만 마음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참 고맙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그 농사꾼들, 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전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같이 하고 먹는 건 따로 이렇게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끓여 먹는 것만 자기가 따로 끓여 먹는 거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움죽거리고 같이 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 어째 한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그릇을 놓고 먹을 때 내가 예를 올리면 전체가 다 감사함을 받는다 이 소립니다. 자기 부모까지도. 그런데 예를 안 올려요? 그래 부처님 도량에 왔으면 부처님 사시마지 때 한 그릇 올리는 거라도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당에 안 올라가도 돼.' 그러는데 흥, 좋아하십니다, 모두. 참 좋아하십니다. 공덕과 복과 뜻과, 이것이 모두 포함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공덕도 쌓지 않고 나만 나라고 한다면, 마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어서 급할 때에 남한테 공덕을 베풀어 줄 수도 없거니와 그 밝음을 비춰 줄 수도 없습니다. 왜? 지혜가 그렇게 없으니 허공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그러니 깨달음도 여러 가지가집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부치 못하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당장 밥을 굶어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됐을 때, 그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방 가서 먹여 줘야, 미음 물이라도 흘려 넣어 줘야 그 사람들이 살 텐데, 그러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아이, 마음공부 했는데 뭐, 마음으로 그냥 살려 주지.' 이러고 말 겁니까? 마음으로 살려 주기도 하면서 에너지도 넣어 줘 가면서, 쌀을 끓여서 미음도 넣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양 개체가 딱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람은 굶겨 놓고 마음으로만 에너지를 넣어 준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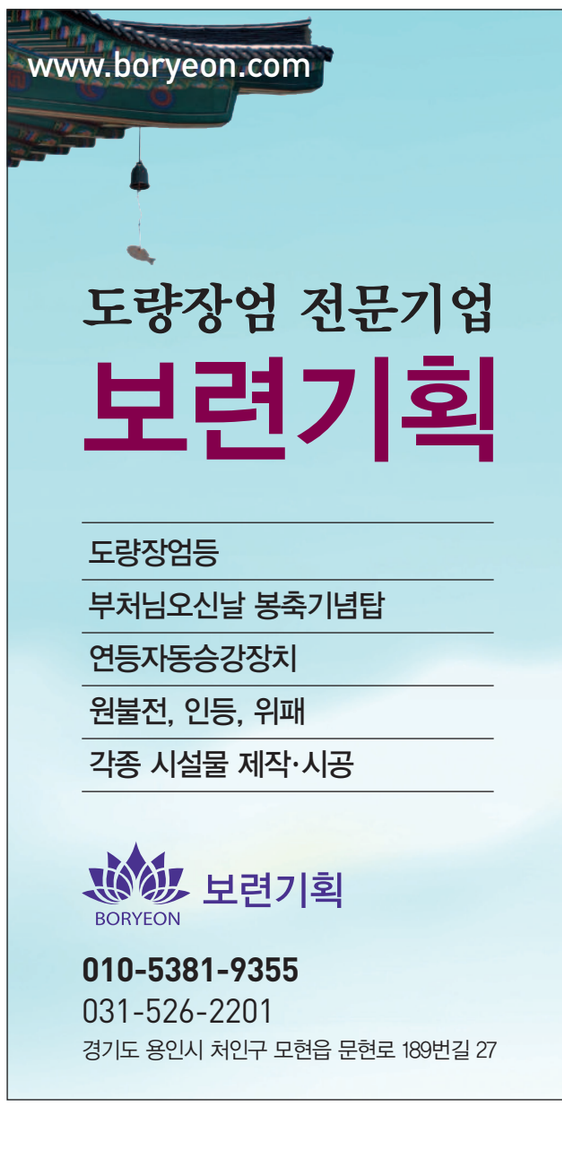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든 믿음에 대해서도, 모든 이 행에 대해서도, 생활에 대해서도 "몰락 모든 것을 놔 버려라." 하는 거는 내 내공이 한데 한마음이요, 한뜻이요, 한 움죽거림이니까 그것을 바로 너만 가진 것도 아니고, 나만 가진 것도 아니고 각각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하게 그대로니 부처님의 뜻을, 심오한 뜻을 알고서 그대로 행해라 이겁니다.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이것을 "몰락 놔 버려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말입니다, 병아리를 깔 때 품지 않고 병아리 까는 거 보셨습니까? 요샌 기계 병아리도 많습디다마는, 기계 병아리도 그래요. 그거는 씨가 없어. 기계로 까는 건 씨가 없어. 병아릴 까지 못한단 얘깁니다, 먹기만 하지. 그러니 병아릴 까려 해도 참 따뜻하게, 온화하게 해서 굴림으로써 병아리가 나오는데, 다 해 놓으면 나중에는 비켜나도 제 가끔들 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내 내공 이 자체를 항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굴리면서, 그 내공이 모든 걸 하는 것이니까, 그 내공 주인공이 모든 것을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는 것이니까, 내가 고정되게 고집하고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 마세요. 내 육신도 다 여기의 종밖에 될 수 없다. 이 종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속에서 바로 이 내공에 항상 예를 하고, 배는 내 육신의 사량, 이런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하는 그런 그 굴림이니, 그 굴림을 우리가 가부좌만 틀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앉으나 서나 다니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참선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굴리는 법이 되고, 그럼으로써 저절로 병아리는 까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이 소립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내 본위로서 말씀을 해 드린다면 '저거 미쳤군. 저거 미쳤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위로서 내가 얘길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아릴 깔 수 있게끔 따뜻하게 그 굴림을 다 굴렸는가. 그 알을 다 굴렸는가. 그래서 알이 차도 안 되고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온도가 맞도록 항상 요게…. 그러니까 아무 데도 치우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서 바로 껍데기를 까실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걷게 되고, 그때는 항상 우리가 자유스럽게 아마 그 뜻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이 향 한 개비를 꽂을 때
> 그 방 안에 그윽하게 향내가 나듯이
> 내 마음의 향기는
> 우주를 싸고 돌 수 있는 향기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4년 4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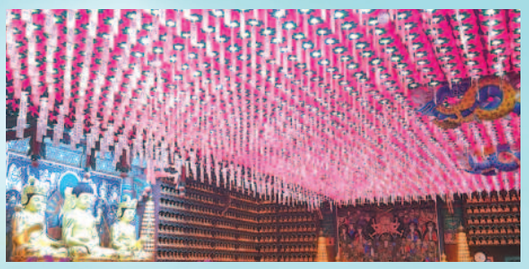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 현불 논단 |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근원적 의문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대표적 화두
묘비에 새겨질 내용 생각하면 쉬워

불자들은 분명하게 답 알고 있어야
업과의 연기적 관계를 이해한다면
자기자신은 과거생 업의 결과일 뿐

의미·가치있는 삶 만드는 과정은
원력(願力)에 있음을 명심해야 해

“당신은 누구입니까?” 법회 때 종종 불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처음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받은 불자들도 난감해하곤 한다.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당신은 누구인가(Who are you?)’ 라는 질문은 비단 불교의 수행이나 여타 명상에 관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듣게 되거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일 것이다.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간에 좋은 대답을 찾기에 무척 까다로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비단 재가불자뿐 아니다. 출가자나 전문수행자들도 이 질문의 대답이 궁하고 까탈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는 참선수행의 유명한 화두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화두를 든 수행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평생토록 구해가는 것이다. 평생을 구하고 찾아도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화두이다. 어떤 스님이 임종을 맞아 마지막으로 입에 담은 음성이 평생 수행하던 화두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질문을 쉽게 변화시켜본다. “당신의 묘비나 납골함에 새겨질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묘비나 납골함에 새겨지는 내용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년월일 정도입니다. 더 없습니다.” 때로 고인의 요청에 따른 묘비명을 새기거나, 남은 사람들이 사랑과 추억의 글을 새겨 고인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런 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름 몇 글자와 나고 죽은 기록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남는 전부인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의 너무나 분명한 현실적 반영이다. 일생을 ‘나(I, MY, ME)’ 라는 생각에 몰입하고 살아왔고, ‘나’ 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한없이 단순함과 초라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불자들은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살아오며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세 가지 업(業)밖에 별도의 자기를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은 업의 지은 바일 뿐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현께서 ‘죽음에 이르러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없고 다만 일생에 지은 업(業)만이 자신을 따른다.’ 고 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삶의 과정 중에서 기억에 남고 기록될 만한 업들이 바로 가장 분명한 ‘자신’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과 자신과의 연기적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바로 보고 아는 길인 것이다.

누구라도 불자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 답은 바로 원력(願力)에 있다. 원력은 불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갖는 내면적인 결심과 그를 성취하기 위해 기울이는 힘을 뜻하는 것이다. 스스로 업장이 무겁다 생각하면 ‘참회기도’ 를 봉사와 보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비보시행’ 을 또는 경전공부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부와 수행’ 을 불사와 포교를 원한다면 ‘불사와 전법’ 을 원력으로 삼으면 된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기도불자입니다.” 또는 “봉사와 보시를 행하는 불자입니다.”라는 대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원력보살’ 의 스스로를 확립하고 원력을 성취하는 불자로서의 자신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칭찬·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한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수록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므로 괴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소리는 몸에 붙지 않고 다만 허망한 말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반성하여 허물이 없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비방하고 힐난하는 말에 이끌려 다니다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비방할 때는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니면서 마음 상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비방 받을 행위를 했는지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린다거나 화를 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의 병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데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칭찬도 비방도 다 속절없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나쁜 업을 열심히 짓고 있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에머슨은 칭찬에 대해 “일상사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굴욕적인 경험이 있다. 바로 ‘바보 같은 칭찬의 얼굴’ 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칭찬에 흔들리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에머슨은 비난에 대해서도 “대중의 못마땅한 표정에는 뜻없이 짓는 상냥한 미소와 마찬가지로 깊은 뜻이 없다” 라고 합니다. 칭찬과 비난은 마치 바람이나 신문기사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림 · 최주현

자신의 중심이 똑바로 서 있다면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불안정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칭찬해 준다 하여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남이 아무리 비난을 퍼부어도 그 역시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내가 아닌 남의 가치관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 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흥천사명 동종, 이제 유랑 끝내자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의 시대였다. 덕수궁에 야외에 전시돼 있다가 현재는 복원 작업 중인 보물 ‘흥천사명 동종’ 은 숭유억불 탄압을 상징하는 불교문화유산이다. 연산군은 재위 10년째 원각사를 폐사시켰고 이 자리에 기생을 기르는 장악원을 세웠다. 같은 해 태조 이성계가 세운 흥천사와 흥덕사가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됐지만, 연산군을 이를 모른 척 했다.

이후 중종이 왕이 됐지만, 유생들의 불교 탄압은 계속됐다. 유생들은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던 흥천사의 사리각을 방화했고, 그렇게 흥천사는 완전히 소실됐다.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동대문에서 광화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창경궁과 덕수궁으로 위치를 옮겼다.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흥천사명 동종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관람객들이 들어와 종 내부에 수정액으로 낙서를 할 정도였다. 흥천사명 동종은 2018년 덕수궁 광명문 이전으로 보존처리에 들어갔고, 조만간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은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4월 1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회의에서 보호각 건립 위치를 덕수궁에서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앞으로 변경할 것을 보고했다.

불교학계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흥천사’ 라는 사찰명이 명확한 성보를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시킨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애초에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관리 · 전시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문화재청은 조계종을 방문해 흥천사명 동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비운의 성보 흥천사명 동종의 500여 년의 유랑을 끝내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새롭게 거듭날 법화종을 기대한다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관효 스님이 공식취임했다. 오랜 종단 혼란이 종식되고 총무원장 서리체제에 이어 취임하는 정식 총무원장인 만큼, 스님을 향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화종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거 빛나던 위상을 기억하는 종도들이 더욱 그렇다. 법화종은 1945년 창종한 전통종단이다. 법화종 원로스님들이 기억하는 종단은 15개 교구와 1700여 사암, 120만 교도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제3종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화종은 반복되는 내홍과 혼란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종단 원로 일조 스님의 한탄이 그 현실을 바로미터로 드러낸다. 일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우리 종단이 승려 기강확립과 도제양성에 소홀한 채 수십년을 흘러오다 보니, 부적격자와 비행승려들이 곳곳에서 세속비리와 야합해 종무행정마저 농단하며 종단 파국을 초래했다”고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중심으로 한 前집행부가 종단 정상화 원력을 세워 실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했던 각종 소송도 상당수 마무리됐고 여법한 선거를 통해 정식 총무원장 체제가 개막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종단이 다시 일어설 동력을 갖추지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다. 관효 스님의 첫 취임일성이 종단 변혁과 혁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다. 법화종은 각종 내홍과 혼란으로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과거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법화종에 격려와 기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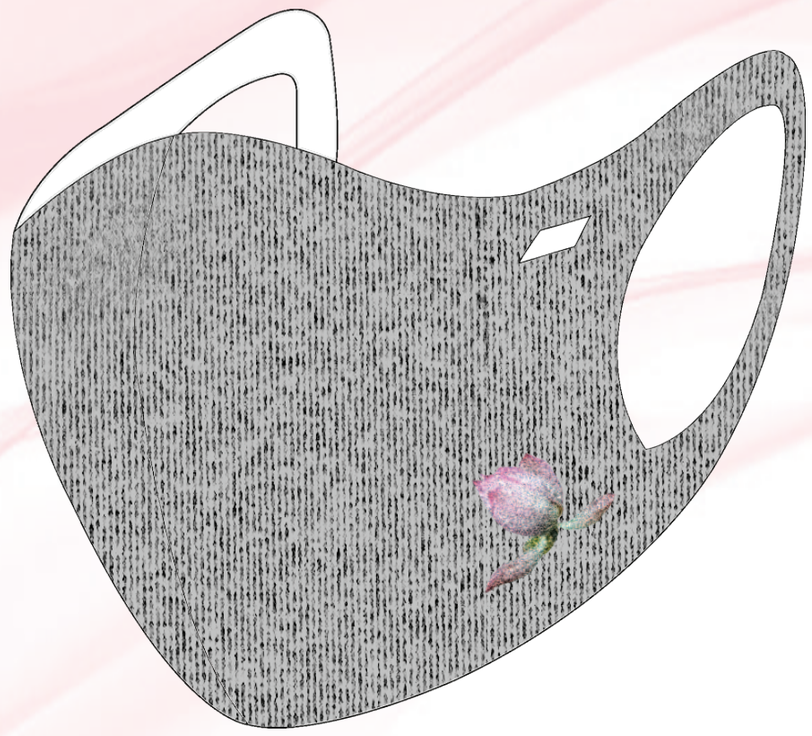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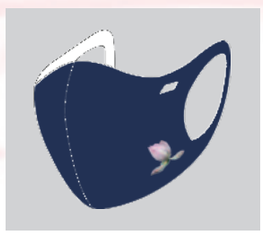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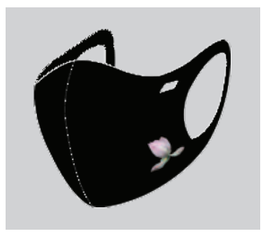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 · 구리마스크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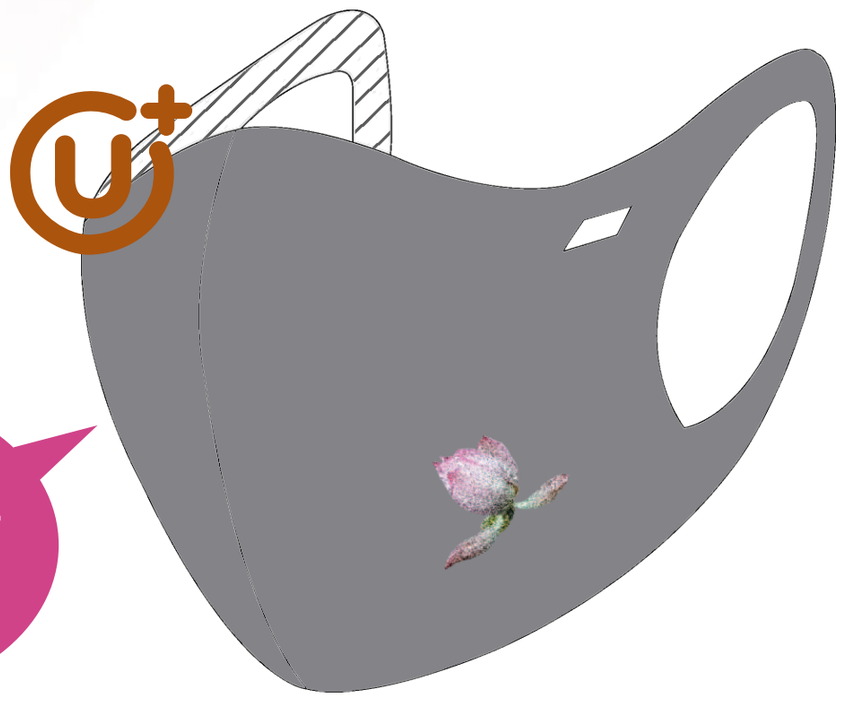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특집

현대불교 1385 호
불기2566년 4월 27일 수요일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일체 제불의 법이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일체제불의 몸은 일체 중생의 몸이다
일체 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 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

– 대행 선사 법어 –

10주기 열반 다례재

5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한마음선원 본원 5층 대법당



자비와 진리의 대행원을 보여준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
(妙空堂 大行, 1927~201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불세출의 선지식이었던 대행 선사. 생전 대행 선사는 일체가 한마음에서 들고 나는 묘공(妙空)의 도리로써 길을 묻는 중생들을 제도했다. 선사의 생애는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걸어온 대자유인의 발걸음이었다.

우주의 근본 묻던 어린 시절

대행 스님은 1927년 음력 1월 2일(양력 2월 3일)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부친 노백천(盧伯千)과 모친 백간난의 3남 2녀 중 셋째인 장녀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은 모두 무관 출신이었고, 부친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군인이었다. 그런 부친의 항일 운동이 빌미가 돼 윤택하던 집안은 스님이 7살이 되던 해에 가산이 몰수돼 몰락하게 됐다. 하지만 7살의 스님을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 부친의 엄한 가르침이었다.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나물과 이삭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모진 시간 속에서 스님은 풀이나 들짐승 등과 대화하며 터득했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은 마음의 눈이 생겼다. 그때 마음속의 '아빠'라 세워두고 수시로 '아빠'와 마주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을 캐물었다.

스님은 14살 나던 해에 상원사 인근의 외가에 갔다가 한암 큰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한암큰스님과의 인연은 불교라는 거대한 운명과의 만남이었다. 스님이 경기도 일대의 산야를 떠돌며 수행하던 중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포화를 뚫고 찾아 간 곳은 서울의 흑석동 숲이었다. 굶주리면 굶주린 그대로의 자성을 보았고 목마르면 목마른 그대로의 성품을 보며 산을 헤매는 사이 전쟁은 끝났고 잠시 가족들과 만났지만 이내 발길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만행의 시간이었다. 전쟁의 참상, 끈질긴 가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모든 것이 비정상인 시대에 오직 산길을 걷고 굶주림과 맞섰다. 그 길에 '아빠'가 있었고 늘 깨침의 종소리를 갈구했다. 당시를 스님은 이렇게 회고했다.

"산으로 돌아다닐 때 여기저기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곰팡이 냄새나는 썩은 나무도 있고 잘생긴 나무, 비틀어진 나무도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느꼈다. 거기서 경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조화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란 걸 알았다. 경전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한두 마디 들어보면 다 포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조화의 이치를 알았던 결과였다."

치열한 만행, 自利利他의 길 걷다

스님의 20대와 30대는 산천을 스승으로 삼아 끝없이 내면의 자성을 시험하고 체험하는 치열한 만행으로 채워졌다.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내면의 '아빠'를 더 사무치게 만났고, 내면을 불태우는 구도열은 더위와 추위를 알지 못하게 했다. 홀몸으로 자성의 이끎을 따라 걸음을 놓으니 화장사(現 지장사), 국립묘지, 한강변, 관악산, 광나루, 헌인릉, 청계산을 거쳐 남한산성, 경기도 이천, 강원도 춘천, 영월, 충북 제천 백련사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에 이르는 만행이 이어졌다.

종국에는 치악산에서 걸망을 내리니 찾아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상원사 중창불사를 마친 것이 1963년이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스님을 '이생(利生)님'이라 불렀다. 이생이란 널리 생명을 이롭게 하는 삶이다. 누구에게나 "너도 이생(利生), 나도 이생이니 전부가 다 이생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길 없는 길'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다. 선사는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이의 마음이 돼 진리를 전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의 절박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주었다. 스님의

주인공 관법 통해 중생 제도
한마음선원 창건…전법행화
국내외 25곳 지원으로 발전

내가 없는 자비행에 기대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도인'으로 치켜세웠으나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자성불(自性佛)의 위신력이라, 스스로에게 갖춰진 능력으로 이루어진 공덕이니 스스로의 자성에 감사하라."

하산, 그리고 전법의 길을 걷다

스님은 치악산에서 무수한 사람을 도와주었지만 바가지에 든 물을 마셔도 금방 목이 마르듯 또 다른 고통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보며 영원한 자기의 생명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61년 탄허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고 원주 인근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치를 전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1972년 안양에 '대한불교회관'을 건립한 후 1982년 한마음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조계종 사찰로 등록하고 선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해에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 지원이 개원됐다. 인연 있는 불자가 운영하던 사찰과 토지를 기증한 것이다.

이로부터 제주, 부산, 광주, 온양, 울산, 대구, 마산, 진주 등 전국 15곳에 지원이 속속 개원됐다. 이들 지원은 안양 본원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지의 불자들이 스스로 발심해 건립한 것이다. 해외 지원도 198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모건힐지원이 설립된 이후 독일·브라질·태국 등 10개국에 지원이 설립됐다. 스님은 지원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순회하며 법문을 하고 신도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잘 공부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보살폈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연보

1927년 정묘(丁卯)년 1월 2일(음력) 지금의 서울 이태원에서 출생
1950년 상원사에서 방한암(方漢岩) 스님을 친견하고 출가의 뜻을 세움
1950~1960년 강원도 경기도 일대 산야에서 10여 년간 산중 고행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戒師)로 월정사에서 사미니계 수지
1961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월정사에서 비구니계, 보살계 수지
1963년 치악산 상원사 중창 불사
1972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대한불교회관'건립
1981년 무량사 우진(宇振)스님을 은사로, 탄허(呑虛)스님을 계사로 소실된 승적 재정리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찰 등록 한마음선원으로 개칭, 선원장으로 취임
1982년 충북 음성군 금왕에 첫 국내지원 개원 제5차 국제불교학술회의에 증명법사로 참석(중국불교연구원 주최)
1984년 본원 합창단을 창단, 선시(禪詩)와 법어로 만든 선법가(禪法歌)를 통한 음성 포교 시작 각 지원에서 어머니, 어린이, 청년합창단 창단
1985년 비디오 법문을 통한 영상포교 시작
1986년 금왕지원에 최초의 한마음 영탑공원 설립, 현대적인 불교장례문화를 선도 이후 제주, 진주, 중부경남지원에 영탑공원 조성
1987년 〈천수경(千手經)〉과〈반야심경(般若心經)〉을 뜻으로 풀이한 한글 경전 보급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국외 지원 개원 (모건힐지원)
1990년 남성 신도들을 위한 법형제 법회 매월 개최(본원)
1992년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설립
1994년 주간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 창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주창 불교서적 출판사를 겸한 국내 최대 불교 전문서점 '여시아문'설립
불교계 최초의 거사합창단 설립(본원)
1995년 〈뜻으로 푼 한글 금강경〉발표
1996년 국내 최대의 불교 포털사이트 '부다피아(buddhapia'개설, 불교계 최초로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온라인 포교를 시작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출판부 설립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 설립
첫 유럽지원인 독일 카스트(Kaarst) 지원 개원
1999년 안양 본원 대법당 준공
불교인터넷방송국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 개설
2000년 8월 UN본부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참석
2001년 국제 포교 및 외국어 법어집 제작을 위한 한마음국제문화원 설립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LJSSS'에서 세계적으로 불교를 널리 알린 외국 스님에게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 수상
제1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합창제 '임의 소식' 개최 (세종문화회관)
2002년 본원 도량에 구정탑(九淨塔) 건립
UN에서 제정한'위대한 불교 여성상'수상
격월간 수행포교 寺報 '한마음저널'발간
2004년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개최 (본원)
제2회 간암환자돕기 한마음합창제'그 마음 그대로'개최 (세종문화회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국제문화원 매년 참가
2006년 제2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송년의 밤 음악회 개최 (안양문예회관)
2009년 한마음불교문화회관 준공
2011년 제22회 포교대상 수상(대한불교조계종 종정상)
제3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한마음음악제'개최 (세종문화회관)
2012년 현재 부산 광주, 통영 강릉 등 15곳의 국내 지원과 독일, 캐나다, 태국 등 9곳의 국외 지원을 개원, 국내외 150여 출가 제자들과 나라와 지역,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기 마음의 근본을 믿고 맡기고 지켜보라'는 생활 관법 수행을 가르치시며 안양 본원에 주석해 오심
2012년 5월 22일 세납 86세 법랍 63세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入寂)

법 회

1971년 이후 30여 년간 연일 담선 법회 개최
1986 ~ 2001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적인 대중법회 개최
1982 ~ 2001 국내에서 약 80여 회의 초청대법회를 개최
1987 ~ 2001 약 70여 회의 국외 초청 법회 개최
1990 ~ 2001 매월 거사들을 위한 법형제법회 개최
1991 ~ 2000 청년들을 위한 전국연합청년법회 개최
1996 ~ 2000 한마음심성과학연구원을 위한 학술법회 개최

전법·포교의 새 장을 열다

스님은 한마음선원 선원장으로 30여 년을 주석하며 주인공 관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끊임없이 행으로 보여주었다. 한마음선원이 보여준 전법과 포교의 새로운 장은 한국 불교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마음선원이 시작한 전법·포교는 '최초' '선두'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었다. 실제로 신행과 포교, 문화사업의 여러 부분에서 선원의 행보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었다. 1984년에는 합창단을 창단하여 선시와 법어로 만든 선법가를 통한 음성포교가 시작되었다. 이후 각 지원에도 합창단이 생겨나고 어린이, 청년, 거사들의 합창단이 각각 결성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선수행의 좋은 방편이 되어주었다.

영상·매체포교 등서 신기원
청년 거사들 전법에 힘써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주창

선법가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사의 뜻을 화두처럼 되새기며 만법의 이치를 궁구하고 남을 위한 보살행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음성공양의 공덕이고 수행이었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불교계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며 2001년부터는 소아암 환자 돕기, 소년소녀 돕기 등 테마 합창제를 주관해 세상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986년 금왕지원(현 광명선원)에는 최초의 영탑공원이 조성되었다. 7평 규모 부지에 1기의 탑을 세우고 그 안에 3대까지의 유골을 봉안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영탑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고자 하는 스님의 마음은 1985년부터 시작된 법문 비디오 제작과 오디오 매체를 통한 포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는 영상을 통한 전법이 많지 않을 때라 불교계에서는 이같은 포교 방식에 주목했다.

스님이 드러낸 매체 포교 열정은 주간 불교전문신문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교의 생활화·대중화·세계화'를 사훈으로 1994년 10월 15일자로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참신한 내용과 편집으로 선보였으며, 인터넷 뉴스를 통한 속보 기능으로 기존의 불교 언론 판도를 바꿔 놓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포교도 단연 선두였다. 1996년에는 불교종합 포털 '부다피아'로 정보화 시대 불교 포교의 새 장을 열었고, 1999년에는 HBTV 한마음불교방송국을 개국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묘공의 도리

안양본원이 설립된 뒤부터 소식지나 책자 등 간행물을 조금씩 발간해 오던 한마음선원은 출판 포교에서도 일찌기 그 중요성을 알고 모든 자료를 문서와 영상으로 전달하려 했다. 스님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반야심경〉과 〈천수경〉, 〈금강경〉을 한글 뜻풀이로 보급했으며 1996년 한마음선원 출판부가 개설돼 본격적으로 선사의 가르침들을 출판했다.

1999년 설립된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스님의 법어집 등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출판했다.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출품돼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생활문화와 역사, 정서가 다른 이국인들에게 이질감 없이 스며드는 스님의 법어는 철저한 생활언어를 근간으로 한다. 종교 이전의 종교를 설하는 스님의 가르침이 다양한 형태의 책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한마음과학원'도 2001년에 문을 열었다. '한마음과학원'은 기존 과학을 융섭하며,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마음과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스님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거금을 희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스님이 거액을 희사하면서도 "불자들의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다.

스님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한마음선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외 크고 작은 관련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졌다.

스님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제22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UN이 제정한 '위대한 불교여성상'(2001년)과 스리랑카 종교복지재단 LJSSS가 시상하는 '사르보다야' 명예상도 수상하였다.

우리 모두에게 자성(自性)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 자성을 생활 속에서 발현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친 스님은 2012년 음력 4월 초하루,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입적하였다. 스님의 법랍 63세, 세납 86세였다.

스님이 '발 없는 발'로 걸어온 '길 없는 길'은 진리와 자비의 대행원이었으며 그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있다.

뇌과학 · 인문학의 눈으로 주인공 관법을 조명하다

전문가들이 말하다

수행 분야

63년 동안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대행 선사는 생전 수행 · 포교 · 불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선사의 원적 이후 전문 학자들은 선사의 행적과 사상 등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대행 선사의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선사의 업적과 학술적 평가들을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올해 2월 국제 환경보건 저널인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IJERPH)'에는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했던 '한마음 주인공 관법'에 관한 연구논문이 실렸다.

바로 한마음과학원 의학팀(김주현 · 김미지 · 장미란 · 이준엽, 이하 과학원 의학팀)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를 대상으로 하안거 기간 중 뇌파를 측정 · 분석한 '주인공 관법이 측두두정엽과 전전두엽 뇌파의 세타파 · 알파파 비율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Juingong Meditation on the Theta to Alpha Ratio in the Temporoparietal and Anterior Frontal EEG Recordings)'이다.

뇌파 측정 결과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측두두정엽에서 많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신도들은 안거 참석 횟수가 많을수록 이 같은 변화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은 "집중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안거 수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알파파가 더 많이 증대했다"면서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면 뇌의 기능적 부분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내셔널 SCI급 저널이자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피인용지수) 역시 높은 편에 속하는 〈IJERPH〉에 주인공 관법 수행의 효과에 관련한 연구 논문이 수록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타 명상과의 차별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행 선사가 주창했던 '한마음 주인공 관법'과 사상은 선사의 원적 이후 과학 · 역사 · 불교학 ·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곳은 지난 2016년 8월 개원한 대행선연구원이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풍(禪風)과 사상, 수행 등을 '대행선'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해 설립됐고, 정기학술대회 · 계절발표회 · 〈한마음연구〉 발간 등의 학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학술대회에서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이평래 초대 대행선연구원장은 "본디 중생의 바탕이 붓다이므로 밖에서 붓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붓다임을 굳게 믿고, 자신의 내면을 관하라는 대행선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붓다를 찾으러 떠돌아다니지 말고 네 안에서 붓다를 찾으라는 것이다. 네 안의 한마음, 바로 그것이 네가 찾는 붓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행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2017)'을 통해 조사선을 바탕으로 한 '본래성불' 사상이 대행선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HK연구교수는 "대행 선사의 법어에는 근원적 한마음의 원리가 설명돼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본래적 주인공의 관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평등적 오공의 공동체 의식으로 실현된다"면서 "대행선에서 본래성불 사상이야말로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구조일 뿐만 아니라 중생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확신토록 하는 수행법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 정기학술대회 등
대행선사 사상 수행 연구 활발
이평래 "너 안의 한마음=붓다"
"대행선, 시대에 맞춰서 주창한
선사만의 독자적 수행법" 평가

주인공 관법 수행자 뇌파 측정
측두두정엽 '알파파' 비율 증가

또한 김 HK연구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2021)'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에서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구조를 비교하고, 두 수행 간의 접점을 찾았다. 그는 대행선 수행 심리가 불이(不二) 구조의 바탕서 구현되며 이는 묵조선의 수증관과도 맞닿는다고 주장했다.김 HK연구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행의 근원은 불이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그것이 대사일번(大死一番)으로 거듭나는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며 "불이 구조를 바탕으로 한 대행선의 심리구조는 묵조선 수행에서 수증불이의 수증관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학회장을 역임한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2019)'를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주인공(主人空)'을 중심으로 새 영역을 구축한 독자적 선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한마음선원 본원에 봉립된 대행선사 동상

그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은 위빠사나를 비롯해 천태의 지관이나 대혜의 간화와도 다른 독특한 관법이다.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놓고 또 지켜보면서 이뤄지는 이 관법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심관이 성숙한 이후에는 무심관으로 들어가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조사선이나 간화선과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국 본래면목을 깨닫도록 하는 데 같은 길을 제시한다. 주인공 관법은 대행 선사가 철저한 두타행을 통해 깨달음 이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선수행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2021)'을 발표한 차상엽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불교가 단일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상 체계가 아님을 강조하며 '대행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주목했다.

차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주인공'이야말로 '영원하고 진정한 벗'이며 그 주인공이 머무는 자리가 가고 옴으로 한정할 수 없는 자리라고 설한다"면서 "이러한 주인공이 바로 한마음이며, 주인공과 한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할 바 없는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과 한마음 법문의 장점은 여느 선사들과 달리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쉬운 언어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침을 펼쳤다"면서 "이 같은 점이 '대중 불교'와 '생활 불교'라는 당시의 시대적 화두와 맞물려서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학뿐만 아니라 인접학문 영역에서도 선사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여성학적 관점에서 대행 선사를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박소진 신한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대행 선사의 젠더적/젠더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2019)' 연구 논문에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불성불론', '변성성불론'에 근거한 질문과 언설에 대해 대행 선사는 깨달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그러한 상(像)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비구와 비구니 사이의 차별적 위계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시대적 방편'이었고 시대가 변하면 방편도 변해야 한다고도 설했다.

박 교수는 "독자적으로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대중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는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 계보 속의 선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행 선사가 보여주는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새로운 선사의 모델"이라며 "비구-비구니의 엄격한 분리 전통을 넘어서 비구 · 비구니를 아우르는 독특한 수행공동체를 형성한 점도 새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리와 자비, 혁신과 개혁의 선구자

전문가들이 말하다

포교 · 불사 분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을 통해 마음의 이치를 전하고 역동적인 전법포교의 행화를 펼쳤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는 불교계에서도 보기 드문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대행 선사의 전법 행화는 '한국불교 최초', '선두'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었다.

전문 학자들은 대행 선사의 전법 · 포교행을 '혁신 · 개혁불교'로 높이 평가했다. 근현대 고승 연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의 성격(2017)'에서 "대행 선사가 생애 전반에서 보여준 수행과 포교는 기존 한국불교계가 보여주지 못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스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년의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대한불교회관을 한마음선원으로 개칭하기 이전 단계로 원주 상원사 불사(1960년대)를 마감하고, 안양으로 이전해 기반을 조성한 시기다.

두 번째 단계는 1982년 한마음선원으로 전환하고 조계종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종단 중심부로 진입한 시기이다. 이 기간은 스님의 포교 활동과 한마음선원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단계로 국내지원, 국외지원의 설립이 진행됐다. 특히 선법가 활동, 영탑공원의 가시화는 여타 사찰 · 단체에서 볼 수 없는 특이성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94년 〈현대불교〉의 창간부터 입적했던 2012년까지다. 이 단계에서는 스님의 가르침과 한마음선원이 불교계 중심부에 완전히 진입해 정상에 섰던 기간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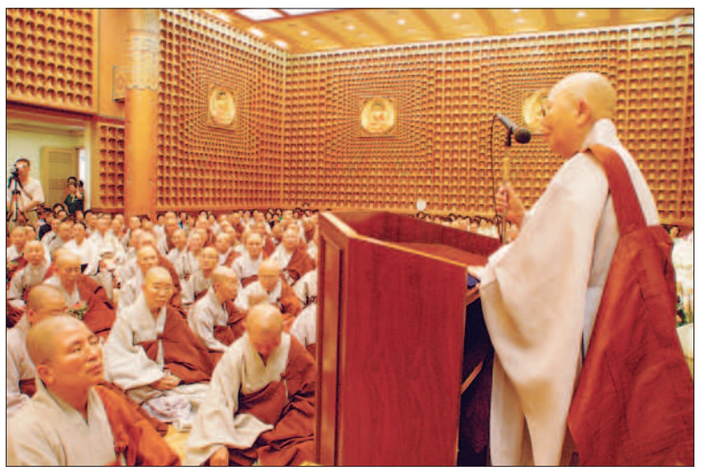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그 어떤 사찰과 단체도 행하지 못하였던 불교계의 신문사를 설립, 경영한 주체는 누구였는가. 더욱이 비구니 스님이 신문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그 당시는 놀라움 그 자체"라며 "스님이 추진한 거사법회, 청년법회, 불교방송국 등은 불교계에서는 감히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신선한 불사였다. 소외자, 방관자였던 거사와 청년을 주체로 법회를 한 것은 CEO인 마인드라 아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불교혁신은 기복 및 경전 중심에서 참선 중심의 포교, 소외자 중심의 포교, 선법가로 지칭된 음악 포교, 서적 및 미디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포교, 일원상(一圓相) 수용, 참선의 독창성 등을 거론할 수 있다"며 "혁신적 · 파격적 · 특별한 시도는 그 자체가 혁신불교였다.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고, 대중의 심성을 고려한 불법 생활화의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재현 동명대 교수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2019)'를 통해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만해 스님과 한암 스님의 불교개혁 방향을 정리하고, 대행 스님의 생애도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행 스님이 1980년대부터 기존의 한국불교와 다른 방식으로 법을 펼치고, 포교활동을 전개한 것은 만해 · 한암 스님의 활동처럼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만해 스님과 한암 스님이 근대기 한국불교가 모색했던 개혁방향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면, 대행 스님은 현대와 미래의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선법가(禪法歌)'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윤소희 위덕대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음악운용 실태와 미래방향(2020)'에서 한마음선원의 독창적인 선법가 구조를 분석했다.

윤 교수는 "선법가의 음악적 기량은 2011년 열린 한마음음악제에서 서양 관현악과 국악 관현악단, 피아노와 하모니카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음악 재료가 총동원된 것에서 드러난다. 여기에 국내와 해외 지부서 다양한 국적의 참여자와 승가, 시각장애인 연주 등이 이뤄져 음악의 수행 및 사회활동으로의 전환도 시사했다"며 "음악이 지닌 정서 순화 치유 등 갖가지 효능 외에도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 음악 포교의 선두에 나선 대행 스님과 창작 및 지도에 참여해 온 재가자들은 시대를 앞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온 선구자로 평가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2003년 전국비구니회관 준공식에서 설법하시는 모습


병원에서 만난 이들에게 마음의 꽃을 전달하는 스님



내 마음의 중심 주처를 세워야 한다

만물만생이 함께 통하는 곳이 마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일체제불과 저와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같이 본래 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싸가지고 돌아가는 우주 전체의 그 중심 주처가 우리들의 중심 주처이기도 합니다. 좀 작고 크고 이럴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기 중심 주처에 그 큰 중심 주처가 둘이 아니게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생활하는 그 곳에 바로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결이 돼 있구요. 만물만생의 마음 그 중심 주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들의 주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주처에 같이 가설이 됐다는 얘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은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서로 뜻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시겠지만 근본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다의 소임자를 주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의 관리인을 주산신이라고 했고요, 풀과 나무들의 관리인을 주림신이라고 했고요. 마음의 중심 주처라는 그 주(主)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갖가지 천차만별의 이름들이 다 주어져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신입니다. 천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중심 주처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처에 주인을, 이 몸뚱이가 집이라면 집 안에 주인을 하나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하지 않고 내 집이 빈집이라면,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윤회성이라든가 이 다섯 가지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집 안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을 딱 세워 놓는다면,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절대 바깥에서의 세균성이나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업식이나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 모두가 다 감히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본래 있으나 내가 생각을 해서 세워야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본래 있으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세워 놔야 세워집니다.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이 움죽거려지지 않듯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몸이 움죽거리고 작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생각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모두가 생각이 있어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전력이 태산 같아도 끌어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중심에 주처가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서 가설이 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며 심성과학이며 철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모두가 종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상대가 있고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 집부터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놔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중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을 모두 세워 놓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그냥 상대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처, 주인, 주장자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주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꿴 주장자와 내 주처의 주장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고, 위아래를 받치고 꿴 거는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세가 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고 그냥 가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딱 집에다가 세워 놓고 가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항상 걸림 없이 집을 보도록 주인을 세워 놓는다면, 자기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그게 바로 보현신이며 법신입니다. 자기가 세워 놓은 그 마음 자체가 부처라면 법신을 세워 놓고 화신, 즉 보현신을 세워 놓는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바깥에서 악행, 즉 말하자면 인과성이나 윤회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이러한 잡다한 모든 영계들이나 유전에 의한 것들이나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거기를 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주인공에 뿌리를 세워 놓은 거는, 세워져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찾아서 거기 세워 놓은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리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거기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분에게는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고, 유전성이나 인과성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까지도 전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화두

그리고 주인을 세워 놓지 않고 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비었어요! 주인을 세워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숙명통 자체가 포함된 오신통을 지금 현대 말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된 대로 가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행이 저질러지거나, 윤회성이 저질러지거나, 영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몸뚱이 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도록 돼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이 가차없이 자꾸자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인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과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대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막고 대치할 수 있는 도리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을 해야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인과성으로 벌어진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영계로서 벌어진 거는 영계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면 네가 바로 부처고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되느니라.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된다면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유로운 작용이 스스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현한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출현했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부터 알아야죠! 나는 쑥 빼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병고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외쳐 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 봐도 그거는 끄덕도 하지 않고 통하질 않습니다. 통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바로 내 마음속의,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하고 주인공 주장자를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자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놓고 굴려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지 않은가 이겁니다.

무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불기둥이 나의 주처

나는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집에서도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단, 바로 자기 내면의 뿌리 털구멍, 한 구멍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놓으세요. 마음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다 거기다가 '아, 당신이 다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 하고 '당신이 대치를 하고 당신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야.' 하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 놓고 꺼낼 때는, 내가 주인공에다 탁 놓고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즉 자기 마음이 잘되고 못되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럭하면 안 된다 된다를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삼위일체로 꿰어서 한생각을 내던진다면 법이 되는 겁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는 법! 그대로 실천되는 법! 이 법을 그대로 행해야 세상천지의 갖가지 악행, 갖가지 부조리, 갖가지 병고…, 어떻게 일일이 말로 그 이름을 다 대리까마는,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대치할 수 있습니다.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꿰고 뚫어서 인간 주처 자체하고 결부된 이 자체를 바로 전력이라 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불타고 있듯이 있는데, 그것을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무한의 기둥, 불기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빈손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빈손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명이 짧으니 명 좀 길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칠성부처라는 그 이름이 빈손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와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그 명을 다소나마라도 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장보살의 빈손도 있고 산신의 빈손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해신 주림신 뭐, 모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그 불기둥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빈손의 그 이름이 탁 나오면서 자기와 결부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자의 그 기둥 안에서 입자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입자가 나올 때는 바로 입자 하나에 칠성부처니 지장이니 뭐 전부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신이 돼서 찰나에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근본, 그 뿌리인 근본이 있고,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도심도 있고 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을 찾고 경전을 보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그렇게 단련을 해 가지고 경전을 한번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싱그럽고 광대무변한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경이라는 것도 교(敎)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스리면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교입니다. 그 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자기의 마음 다스림에 의해서 결부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경만 읽으면 잘되는 줄 알아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대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다가 돼라 이 소립니다. '그 불기둥에 놔라, 놔라' 하는 것은 한바다에 물 몇 그릇 붓는다고 두드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물 몇 그릇 퍼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구정물, 흙물, 핏물, 고름물 할 거 없이 다 들어가도 다 바닷물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가라앉혀서 그대로 양식이 돼서 만생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다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넓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마음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점프해서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 하나만 쥐고 모든 거를 잘 기억하셔서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보면 진실이 돼 버립니다. 진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구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1994년 10월 16일 광명선원 법회 중에서 발췌〉

만물만생의 주처가 서로
연결돼 있지만 내가 생각을
내지 않으면 불을 켤 수 없어

경전을 보는 것도
자기 마음 다스림과
결부가 돼야 참뜻을 헤아려

한마음과학원

마음 · 과학 융섭 연구 새 장 열다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지구를 살리고, 지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자유인으로 싱그럽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계에서 물질계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줘야 합니다."(대행 선사 법어 中)

한마음과학원은 인류발전과 생명진화를 위해 심성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행 선사의 뜻에 따라 1996년에 심성과학연구원으로 처음 출발했다. 현 명칭인 한마음과학원은 2001년 3월 출범식을 기점으로 공식화됐다.

대행 선사는 인문 · 공학 · 자연 · 의학 등 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마음 근본을 통해 지금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과학원 회원들을 위해 따로 정기적인 법회를 주관했으며, 원적에 드실 때까지 직접 원장으로 주석하며 연구와 수행이 둘이 아님을 항상 일깨웠다.

이에 따라 한마음과학원은 '일체의 근본이 한마음이며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한마음의 원리'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실증하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전문회원들의 월례 법문 · 학술 세미나, 학술 연구분과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및 국내외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2004년 국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대중들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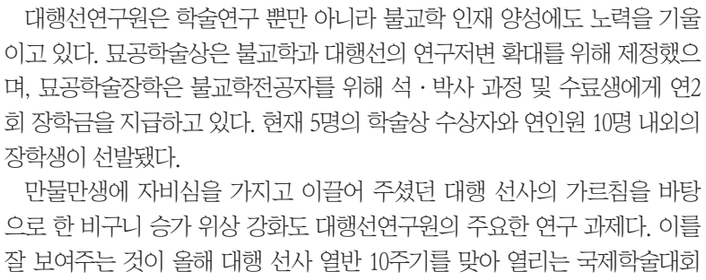
교육 활동으로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이 대표적이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자신의 삶과 실생활에 부딪히는 다양한 인연들을 공부 재료로 삼아 불법의 이치를 체득해 나가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고, 근본 자리에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 주인공 관법을 통해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간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이수자 중심으로 심화과정도 연 1회 운영된다.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는 9월 23~2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코로나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음, 과학, 종교'이며 미국 · 독일 · 아르헨티나 · 일본 · 대만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한마음과학원 교육.

대행선연구원

'대행선' 체계화…한마음사상 정립 힘써



제1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연구원은 2016년 8월 1일 묘공당 대행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선사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대행선의 정체성과 보편성을 확립해 한마음사상의 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행선의 체계화가 주요한 목적인만큼 대행선연구원은 다양한 학술 연구 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해 △연 4회의 계절 발표회 △월 1회의 한마음세미나 △연 2회의 〈한마음연구〉 학술지 발행 △묘공학술상 △묘공학술장학 등 학술 사업과 지원 · 장학사업이 대표적이다.

매년 열리는 학술 행사는 2022년 현재까지 계절발표회 11회, 학술대회 5회가 열렸으며 총 52명의 전문 학자들이 대행선과 불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그 스펙트럼도 매우 넓다. 학자들은 대행 선사의 사상을 불교학뿐만 아니라 문화 · 예술 · 건축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한마음세미나'는 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상 탐독 시간으로서, 대행 선사의 법문을 바탕으로 개별발제를 진행하며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2018년 8월 창간한 〈한마음연구〉 학술지는 현재 제8집까지 간행됐으며 국내외 유수학자의 논문 61편의 정규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논문들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행선연구원은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불교학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과 대행선의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했으며, 묘공학술장학은 불교학전공자를 위해 석 · 박사 과정 및 수료생에게 연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5명의 학술상 수상자와 연인원 10명 내외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만물만생에 자비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비구니 승가 위상 강화도 대행선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과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올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다. 오는 6월 17~18일 양일간 '세계의 비구니 승가-현재와 미래(Buddhist Nuns' Sangha around the World: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16명의 수행자와 전문 학자가 참여해 국내외 비구니 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알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마음선법합창단

禪法歌 합창이 수행… 문화포교 선도

선법가(禪法歌)는 대행 선사의 게송이나 선시, 법문에 곡을 붙여 생활 속에서 선의 가르침을 늘 접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노래다. 한마음선원에서는 1980년대 초반 대행선사의 법문 가운데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라는 법어를 노래로 만들어 처음 선법가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후로는 서창업 · 김용호 · 변규백 등 불교음악의 전문 작곡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선법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중생들이 자성을 깨쳐서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는 선사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든 선법가는 각자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 가르침과 둘로 보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근본 불성을 믿고 활용하는 생활 속 수행을 이끌어 내는 획기적인 포교의 방편이 되고 있다.

선법가의 발전은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의 시작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선법합창단은 쉼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바깥으로 치닫던 마음을 노래를 통해 안으로 되돌려 생활 속에서 선 수행을 하게 만드는 음성 포교의 중요 산실이라 할 수 있다. 김용호 · 서창업에 이어 서윤재 지휘자와 김원규 반주자가 선원의 선법합창단을 이끌어오면서 1994년에는 불교계 최초의 거사합창단이 결성됐으며 국내외 지원에서도 청년회, 어린이회에서도 각각 합창단이 결성됐다. 선법합창단은 정기법회에서의 음성공양 외에도 자선음악회, 대규모의 연합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코로나 시대에는 본원과 각 지원의 합창단이 노래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법회 때 공유하고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수행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는 10월 23일 '한마음 희망 음악회'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모든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시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선법합창단은 "자유롭게 모이기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마음 희망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선법의 음파가 모두에게 두루 닿지 않는 곳 없이 전달되기를 발원한다. 이 같은 발원으로 단원 모두가 부지런히 연습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기법회에서 음성공양 중인 선법합창단.

과학 · 학술 · 환경 등서 선사 가르침 오롯이 전승

한마음선원 출판부 · 영상포교부

마음의 이치를 미디어로 전하다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출시한 법어집 오디오북.

한마음선원 출판부는 1999년 대행 선사의 법문 전집 중 일부를 처음 출간한 이래 계속하여 원전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고 있다. 법문 원전을 묶어내는 일은 더 다양한 종류의 2차 저작물을 용도대로 생산해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중요한 밑거름이다.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나온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2012년 대행 선사 열반 이후부터 선사의 위업을 정리하고 영상을 통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한마음선원 영상포교부는 뉴미디어 포교라는 새로운 포교 시장을 개척 중이다. 영상포교부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콘텐츠 공유 채널에서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신도들뿐 아니라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제를 기획하고, 이를 동영상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한마음선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영상포교부는 대행 선사의 법문 영상을 다양한 계층의 대중들이 용도에 맞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공했으며 한마음선원의 각종 기념사업과 법회 · 행사 영상을 기록하고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영상포교부의 역량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빛을 발했다.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한마음선원은 마음공부를 하는 신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공생의 이치를 적용시키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담아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도반의 역할을 했다.

최근 영상포교부는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디오 법어를 선보였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법어집 〈삶은 고가 아니다〉를 낭독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의 노련함이 아닌 공부하는 이들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마음공부를 전하는 포교방식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영상포교부는 "가르침의 기본 개념을 좀 더 쉽게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과제가 항상 남아있다"며 "마음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후학들과 신도들의 신행담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계획 또한 계속 진행해 가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원력

현대불교신문사는 대행 선사의 매체포교 원력이 담긴 불교 전문신문이다. 대행 선사는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훈으로 현대불교신문사를 창립했다. 당시 창간 1호는 본지 16면, 특집 8면으로 구성됐다.

창간 이후 현대불교신문사는 다양한 연중캠페인을 전개하며 불교 신행 · 사회운동 트렌드를 선도했다. 1995년 연중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를 통해서는 '불자 가정 스티커를 붙입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1회 신행수기 공모로 신행 문화를 선도했다.

1996년에는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연중캠페인과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을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1998년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국난극복 참회 대법회를 진행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행보를 걸었으며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한글대장경을 완역한 2001년에는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한 '도난문화재를 찾읍시다'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2004)를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법회'(2005) △월정사 공동 주최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2006)'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2008) △빛고을 아카데미(2010) 등 다양한 법회를 통해 수행 · 신행문화 진작에도 힘썼다.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5년 개설한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의 홈페이지를 1996년 제작해 불교 정보화시대를 열었다. 2000년에는 인터넷 실시간 뉴스를 표방한 '붓다뉴스'를 개통해 불교 인터넷 언론의 시초가 됐다.

신문 지면에서도 혁신을 보였다. 2002년 16면+12면, 총 28면 투섹션으로 지면을 개편했고 이듬해에는 16면+16면, 총 32면으로 증면해 불교계 언론 중 최대 지면 수를 자랑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신문사에서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공(GONG)'을 개설하고 다양한 불교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당시 사옥 제막 모습.

EM지구사랑작은실천

共生 실천, EM으로 함께해요



도곡 중앙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직원역량강화연수.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 제작 · 보급을 통해 대행 선사의 공생(共生)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됐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2018년 4월 2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한 13명의 대중 스님들로 이뤄진 승가결사체로 출범했다. 그해 5월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돼 한마음선원과 연계 사찰,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을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안양본원 본부에 이어 2019년 5월 대구지부와 포항지부가 발족됐고 2020년 5월 강릉지부가 발족됐다. 2021년 5월에는 진주 · 광주 · 제주 · 공주지부가 설립되며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 중이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2020년 2월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한 EM스마트 발효기를 개발해 2개의 특허를 받았으며, 대중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76개 사찰, 17개 복지관, 20개 원불교당, 38개 학교 등 총 186개 지역공동체에 EM지구사랑작은실천이 보급한 발효기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사업도 EM지구사랑작은실천의 주요 사업이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총 145시간동안 1만1147명에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가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턴십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고, 이런 노력으로 그해 12월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도 사회환경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2022 환경실천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1기'가 진행 중에 있다.

지구사랑작은실천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2월 설립된 것도 큰 성과다. 협동조합을 통해 환경문제 극복에 필요한 환경교육서비스와 EM친환경제품을 보급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EM지구사랑작은실천의 계획이다.



1996년 9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대행스님 서울대법회에 참석한 스님들

온갖 것 참으로 있음 아니요
참마음 오직 홀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참마음도 실체가 없어
인연따라 온갖 것 지어내나니
지어진 모든 것에 집착 없으면
부처님 그대로 현전하리라

– 대행 스님 게송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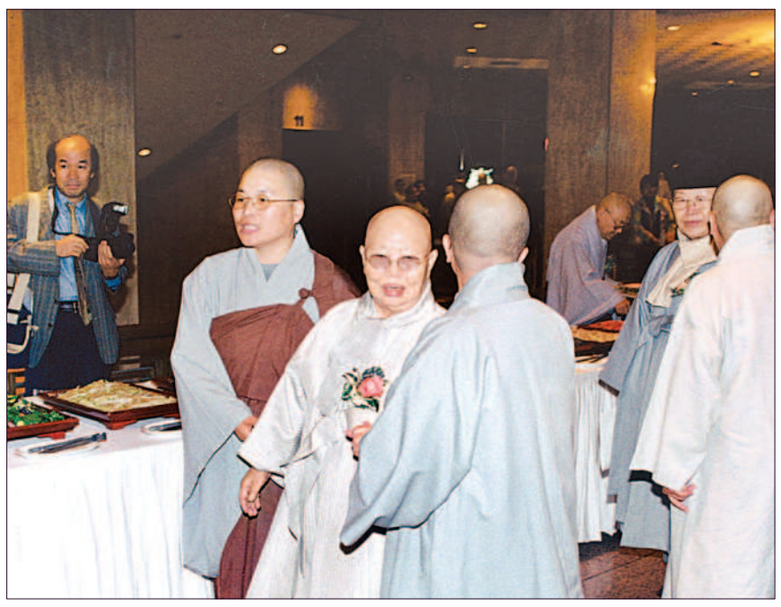
"한 점의 불씨가 만가지 꽃을 피우니…"



1990년 4월 12일 숭산스님의 미국 프라비던스선원 법회에 참석한 후 대행스님과 숭산스님의 모습



2004년 로버트 버스웰(UCLA 불교학 연구소장) 교수와의 환담



2001년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심장병어린이돕기 합창제에 참석한 대행 스님



1996년 10월 6일 독일지원 개원법회에 참석한 대행 스님



1990년 5월 14일 충성법당 초청법회 기념사진. 앞줄 가운데 대행 스님



1995년 10월 8일 중앙승가대학발전 기원부산대법회에서 법문하는 대행 스님



2001년 5월 18일 동국대초청법회 참석한 대행 스님

“스님의 중생 위한 간절함 떠올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탄허 스님 상좌인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대행 스님이 오대산 수행 때부터 인연을 쌓아왔다. 스님은 탄허 스님도 대행 스님의 배포에 대해 늘 칭찬하셨다고 강조했다.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이 오대산에 계실 때가 1959년 경으로 그 때 인연이 닿았다”고 말했다.

“대행 스님에 대해 놀란 것은 그거예요. 우리 노장님(탄허 스님)이 칭찬하신게 그거에요. 큰일 할 사람이라고, 배포가 저렇게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셨죠.”

스님은 대행 스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셨다. 탄허 스님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대행 스님께서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이해해 소화시켜서 대화하는 힘은 통찰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런 통찰력의 기반에는 중생 구제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강조했다.

“나중에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안양에 계시더라구요. 안양본원 불사하기 한참 전입니다. 안양은 그때 완전히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행 스님은 가난한 집에 쌀을 한가마니씩 나눠 주셨죠.”

대행 스님이 안양에 기반을 다진 1960년대에는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매우 큰 금액이었다. 혜거 스님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큰 마음을 내는게 진짜 공덕이라고 했다. 스님은 “중생구제의 마음이 간절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불법이 나옵니다”라며 “대행 스님의 통찰력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탄허 스님도 대행 스님이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얘기 하신 것도 그 지점이었다고 봅니다. 대행 스님 열반 10주기에 다시 떠올려야 할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주일 기자**



“50년 前 원력 되살리는 계기로”

제40대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대행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선원 대중들이 10년 전, 20년 전, 아니 50년 전 선원을 세운 원력을 되살리는 역동성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행 스님과의 오랜 인연이 있는 동국대 前이사장 법산 스님은 1969년 대행 스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술회했다. 스님은 “동국대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화봉 유엽 스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안양에서 대행 스님을 만났다”며 “언덕길을 이리저리 올라가서 조그만 집 방에서 처음 뵈었는데, 아주 말씀이 당차셨다. 그때 감명을 받아 이후 석박사 과정 밟으며 틈틈이 가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대행 스님 상좌 스님들의 정규교육 문제부터 비구 스님들의 비구계 수계문제 등 여러 가지 선원 대소사를 겪으며 더욱 인연이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법산 스님은 생활에 밀접한 즉문즉답이 바로 스님의 경지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께서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셨지만 특히 대중포교에 있어서는 한국불교에서 누구도 이뤄내기 힘든 선구적 위치에 있다”며 “선원 대중들은 하심해서 스스로 봉사한다. 대중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끌어내는 가르침이 그 요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깨달은건 스스로 깨달았다고 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얼만큼 생활에서 실천해가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님은 한마음선원 대중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했다. 스님은 이번 10주기를 계기로 한국불교와 우리사회에 한마음선원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한마음선원이 미래 한국불교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승단과 신도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정진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노덕현 기자**



“BTN불교TV 회생 큰 공덕주”

BTN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은 2000년 5월, 대행 스님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생생하다. 불교TV가 자금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을 때, 대행 스님의 후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만난 대행 스님은 불교TV에 대해 현재와 미래 한국불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천년사찰만큼이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는 것이었죠.”

성우 스님은 “당시 후원은 대행 스님이 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에 무한한 원력을 가지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인터넷 포교를 시작했고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통해 매체포교의 장을 연 스님이기에 불교TV에도 무한한 애정을 보이셨다는 것. 그러면서 BTN불교TV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버팀목이 됐던 대행 스님을 떠올렸다.

“어느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중계차며 카메라에 붉은 딱지가 붙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며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데 안양에서 전화가 왔어요.”

혜수 스님(현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전화였다. 대행 스님이 뵙자고 하신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대행 스님은 또 한 번의 후원을 해줬고, 이는 불교TV가 회생하는데 큰 몫을 했다. 성우 스님은 당시 상황을 “꿈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이것이 부처님 가피”라고 말했다. 스님은 “대행 스님이라는 큰 공덕주의 대작불사로 불교TV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마음선원에 들러 향을 사르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우 스님은 “큰스님의 빈자리가 한없이 적막하고 허전하지만 전법과 자비나눔의 정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비구니회 운영에 큰 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명성 스님은 대행 스님과의 인연을 감사로 되짚었다.

스님은 “前비구니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광우 스님을 통해 전국비구니회관을 짓는데 큰 시주를 하셨다는 말씀과 소식을 종종 들어 왔다”며 “그런데 제가 광우 스님에 이어 회장을 맡고 보니 비구니회의 경제적 상황이 아주 어려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대행 스님을 찾아갔다”고 회상했다.

“대행 스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마침 유리창으로 9층탑이 보이더라고요. 별 소리 없이 ‘저기 9층탑이 있네요!’ 한 마디를 하고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행 스님께서 인편으로 운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던가! 명성 스님은 “스님의 무주상보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고 전했다.

스님은 “비구니회관 건립에 상당한 액수의 불사기금을 시주하기 위해 선원 스님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를 훗날 들었다”며 “어른스님의 뜻에 따라 한마음으로 정진하는 선원의 스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그 인연을 시작으로 대행 스님과 교류를 이어갔다. 새해에 시간이 허락하면 진관스님, 광우스님, 법운스님과 함께 선원을 방문하여 얘기를 나눴으며 제자들이 노년의 스님이 주석하실 수 있게 단아한 전통양식으로 지어드린 서산정에 들러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스님은 “그때마다 우리는 말 없는 가운데 많은 얘기를 했었다”며 “세월이 흘러 스님은 없지만 많은 제자스님들이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잘 유지 발전해 오고 있음에 재차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처처에 스님 법향이…“감사합니다 그립습니다”

불교 대소사 마다 깊고 넓은 가르침 남아

송석구 제14대 동국대 총장

대행 스님께서는 불교계가 어려울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선지식이셨습니다. 1999년 동국대 총장에 취임하고서 한마음선원으로 가 대행 스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때 대행 스님께서는 동국대 발전기금을 내시면서 따로 총장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며 저를 불러세워 챙겨주셨습니다. 당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여러 유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유혹 다 버리고 이걸로 꼭 쓰세요.”

그 얘기를 듣고 총장 임기를 시작하며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스님의 이러한 원력은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건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동국대를 비롯한 불교계는 제대로 된 불교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층고를 높여서 꼭 12층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12연기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대중의 마음도 치유하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고도제한이 있어 인근 군부대에서는 8층 높이로 밖에 병원을 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때마다 ‘큰 뜻이 있어 마음을 내면 꼭 이뤄진다’며 격려해주셨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산 불교병원을 12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불교계 일을 하며 그 현장에서 여러 고충을 한 번에 알아보시고 마음을 내시는 것은 깨달은 자의 풍모입니다. 스님의 행화에서 감사함과 함께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해줘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대행 스님의 깊고 넓은 깨달음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한번 보살행으로 펼쳐내는 것이 바로 남은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님의 법비가 가뭄에 단비처럼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창간 편집국장

1991년 봄, 나는 대행 스님을 처음 뵈었다. BBS불교방송은 개국 1주년 특집으로 신행상담 프로그램인 ‘자비의 전화’를 미국 LA ‘라디오 코리아’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교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나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

불교방송은 그 무렵 한마음선원 LA지원에 계신 대행 스님께 법을 청하는 대담을 했다. 그 자리에 동행한 나는 내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거들었다.

대담이 끝난 뒤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원 이렇게 영특할 수가 있나.”

1994년 봄, 조계종 개혁으로 불교신문 기자들이 사직을 하게 됐다. 얼마후 나는 한마음선원이 김광삼 사장님을 주축으로 조계사 인근에서 창간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현대불교’가 창간호부터 게재하고 있는 ‘길을 묻는 이에게’는 대중을 마음의 길로 인도하는 대행 스님의 법문이다.

스님의 주인공 관법은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일러주는 생활선(禪)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고(苦)의 원인인 집착을 내려놓는 방하착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금강경의 응무소주(應無所住)와 같다고 본다.

대행 스님 초청 독일법회에서 많은 독일인들이 스님의 법어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깊이 있는 가르침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금년 대행선사 법어 달력 첫장을 따로 떼서 벽에 붙였다. ‘마음을 쉬어라. 쉬는 까닭에 일체가 내게로 상응하게 된다.’

“스님의 법비가 가뭄에 단비처럼 만인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님,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가르침 만난 복연에 희열이

이동복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불교는 기복신앙이라는 무지한 선입견으로 꽉차있던 30대 초중반에 아내를 통하여 스님의 법문을 전해 듣고 ‘불교가 그런 거라면 진즉에 절에 다녔지’ 라는 속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 선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멀찍이 뒤에 자리한 저를 보시고 ‘당신 신랑 참 착하다’ 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가 첫 친견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어떤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따라 모든 것이 이끌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려 합니다. 그냥 열심히요. 퇴직 전 직장생활 할 때보다 더 열심히요. 조용한 시간에 스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복연을 생각하면 가슴 벅찬 희열이 끓어오르지요. 그래서인지 다가오는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려합니다.



마음의 보배 일러주신 감사함 가득

윤상현 한마음선원 청년회장

스님의 모습은 제게 어릴 적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제가 스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된 것은, 소임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요전에 담긴 스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열반 다례재 영상에 담긴 내용들을 접하면서 스님에 대해서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마음요전 큰스님 행장에 관한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스님께서 견성암에 계실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보듬어주셨던 이야기를 한장 한장 읽을 때마다 스님의 자비심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넓어서 그 끝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마음의 보배를 가르쳐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걸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일러주신 스님께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당당한 대장부로 자랐습니다

이미영 한마음선원 자모회장

저는 큰스님을 초등학교때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직후 안양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어린이 법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때 큰스님을 뵙게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대장부가 되리라 다짐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온 저는 어린 아이로 큰스님을 만나 뵙고 이제는 삼남매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나창흠(고3), 나성흠(중3), 나미나(초6)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자기의 참마음을 믿고 따르며 지혜롭게 생활하라는 큰스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스님 떠오를 때마다 크고 깊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는 길만이 그 은혜에 보은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정진 하겠습니다.



스님 지금도 천지에 유유, 찰나 경험

미국 워싱턴지원 신도 문범강

가을이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선원 뒤뜰엔 감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1986년 쯤 이라고 기억한다. 나는 메릴랜드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살던 메릴랜드주는 동쪽 끝이고 산호세는 서쪽 끝이니 비행기로 5시간 반을 날아갔다.

당시에 스님을 홀로 친견을 했다는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귀한 시간이었지만 그땐 그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나는 너무 어렸다. 세월이 흘러, 마음공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스님의 모습은 가고 안 계시지만 그 부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천지에 유유하신다.

나는 가끔씩 큰스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낼 때 찰나에 신호가 오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열심히 해 보세요” 말씀, 태국 태권도 씨뿌려

태국지원 신도 송기영

1999년 개원을 하고 큰스님께서 오셨을 때, 각 지원의 스님들과 신도 회장님들이 힘든 것 있으면 스님께 말하라고 자꾸 권했어요.

스님께서 “송회장은 뭘 해 보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태권도가 잘 되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님께서 “열심히 해 보세요. 열심히만 해 보세요.”라고 하시기에 그 말씀만 따라 열심히 했더니 그 후로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국에 태권도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지금도 제 나이 86살인데 태권도에서 가장 높은 급수는 제가 심사를 하러 갑니다. 이게 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스승님들 덕분에 우리는 진리를 맛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지구 정반대서도 가르침 이어가요

아르헨티나지원 신도 서아리

밤과 낮이 고국과 정 반대인 아르헨티나에 44년 전 이민을 와서 사는 동안 큰스님과 인연이 되었지요. 그때는 너무 어설프고 사람이 무서웠답니다. 지금은 선원도 있고 그 많은 시간속에 큰스님과 입적하신 연자당 혜원스님의 가피는 글로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메어옵니다. 그리고 이곳 선원에서는 두 분의 아르헨티나 현지인 스님이 출가해서 한마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투쿠만 지원에는 청주스님께서 한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며 주야로 선원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다듬어 나가고 계십니다.

“무명속에서 벗어나 세세생생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스님의 뜻을 받들어 저는 한마음선원과 모든 인연 지어진 이곳 신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마음으로 살아가려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감사합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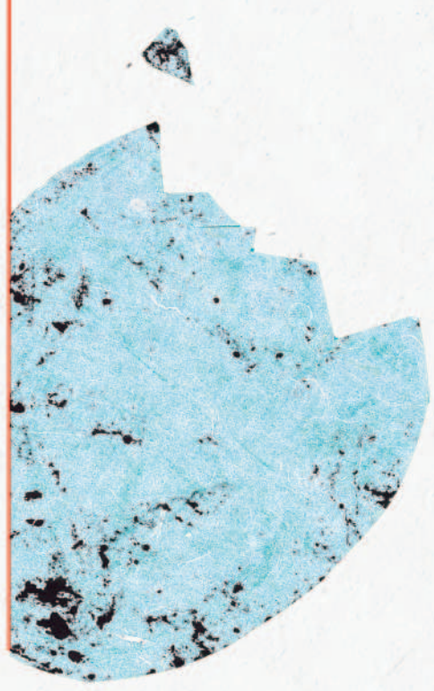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 선시 모음집 출간

일체제불의 마음은 버 한마음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가격: 20,000원 / 336쪽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본원 무진향과 전국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발간!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낭독한 오디오북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의 이치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와 유튜브 채널 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개정판 종이책 14,000원 / 전자책 7,000원